

## ▶ 내신 기출 문학 창비-하편 ◀

### Ⅲ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

*이생규장전 (55문제)-----	1쪽
*엄마의 말뚝 2 (39문제)-----	33쪽
*이옥설 (30문제)-----	54쪽
*북어 대가리 (42문제)-----	65쪽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39문제)-----	85쪽
*제망매가, 동곡칠가 4 (30문제)-----	114쪽

### Ⅳ 문학과 삶

*별 헤는 밤 (33문제)-----	129쪽
*입동 (33문제)-----	142쪽
*수오재기 (40문제)-----	162쪽
*비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35문제)-----	180쪽

◆빠른 전체 정답-----203쪽

◆해설-----206쪽

**교재 버전: 2021.02.16**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 '이생규장전' 핵심 정리

## 핵심정리

- ▣ 갈래 고전 소설, 한문 소설
- ▣ 성격 전기적, 비극적
- ▣ 주제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
- ▣ 특징
  - 비현실적이고 신비로운 내용을 다룸,
  - 작품에 시를 삽입하여 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함.

## 작품의 짜임

구분	주요 내용	구성 단계	행복/불행
전반부	이생과 최 씨의 만남과 사랑	발단	행복
	이생 부모의 반대로 인한 이별	전개1	불행
	부모의 반대를 극복하고 결혼함	전개2	행복
후반부	출견적의 난으로 인한 최 씨의 죽음	위기	불행
	살아있는 이생과 죽은 최 씨의 재회	절정	행복
	이생과 최씨의 영원한 이별	결말	불행

## 등장인물의 성격

이생	최 씨
소극적, 유약함	적극적, 강인함
부모님의 뜻에 따라 영남으로 떠남.	부모님께 자기 입장을 밝히고 도움을 요청해 사랑을 성취
도적에게 달아나 목숨을 지킴.	목숨을 바쳐 절개를 지킴.

## 작가의 가치관 반영

내용	작가의 가치관
이생에 대한 최 씨의 영원한 사랑	단종에 대한 충성
죽음을 초월한 만남	이생을 실현할 수 없는 현실적이고 냉혹한 현실적 사랑을 통해 순화
죽음을 통한 영원한 이별	살과 죽음은 경해진 것

## 시와 노래의 삽입

- 1 인물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
- 2 사건을 입체적으로 보여줌.
- 3 앞으로 전개될 사건의 특성을 알려줌.
- 4 사건 전개에 단조로운 피함.

## 금오신화

- 이생규장전을 포함해 총 5편 수록
- 중국 전기소설 전통신화에 영향 받음.
- 골건한 기상과 의지를 지닌 한국적 인물의 창조
- 조선술 배경으로 주제의식을 드러냄.
- 작가의 가구한 처지를 주인공의 비극적 결말에 투영
- 유·불·도 세계관 모두 반영
- 소설의 혁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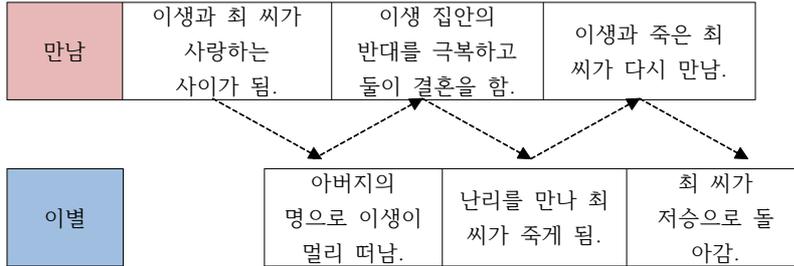
## 금오신화 속 작품 (이생규장전 외 4편)

- 만복사지포기**  
남원에 사는 가난한 노총각 양생이 왜구의 침입 때 정장을 지키다 죽은 처녀의 황신을 만나 사랑을 나누다가 처녀가 떠난 후 장가를 가지 않고 산에서 막초를 캐며 살았다는 내용
- 취유부벽경기**  
송도에 사는 흥생이 평양 부벽장에서 취해 놀다가 기자조선 마지막 임금의 딸인 기씨녀를 만나 나라가 망한 사연을 듣고 울분과 감회를 나누다 헤어진 후 선계로 간다는 내용

- 남양부부지**  
미신과 불교를 배척하는 경주 박생이 풍속에 열라국에 가 명왕과 토론하고 돌아온 후 열라국 왕이 되어 세상을 떠난다는 내용
- 웅궁부연록**  
송도의 한생이 용왕의 초대로 용궁에 가 시 짓는 재능을 발휘하고 돌아온 뒤 세상의 명리에 뜻을 두지 않았다는 내용

# '이생규장전'의 핵심 내용 요약

**1** 다음은 이 작품의 주요 사건을 만남과 이별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채워 보자.



**2** 이 작품에 삽입된 시와 노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해 보자.

- 정서적 기능: 인물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상황을 압축적으로 표현하여 분위기를 형성한다.
- 서사적 기능: 이전의 사건을 압축적으로 보여 주고 앞으로 전개될 사건의 특성을 알려 준다. 산문에 운문을 삽입하여 사건 전개에 단조로움을 피하게 한다.

**3** 다음 상황에서 보여 주는 ‘이생’ 과 ‘최 씨’ 의 대응 방식을 바탕으로 인물의 성격을 파악해 보자.

상황 인물	부모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됨.	난리를 겪으며 도적에게 쫓김.	성격
이생	부모의 뜻에 따라 영남으로 떠남.	달아나 혼자 목숨을 지킴.	→ 소극적, 유약함
최씨	부모님께 자기 입장을 밝히고 설득하여 사랑을 성취함.	목숨을 바쳐 절개를 지킴.	→ 적극적, 강인함

**4** | 보기 |는 이 작품의 작가인 김시습에 관한 내용이다. 이를 참고하여 작가가 ‘최 씨’ 를 통해 말하고자 한 바를 추측해 보자.

**보기**

- 5세 때 이미 신동이라는 소문이 국왕인 세종에게까지 알려졌으며, 세종에게서 장래에 크게 쓰겠다는 전지를 받았다.
- 21세 때 수양 대군이 단종을 몰아내고 왕권을 잡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길로 보던 책을 불사르고 승려가 되어 전국을 방랑하였다.

김시습은 어려서부터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수양 대군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하자 불의한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스스로 소외된 삶을 택하였다. 작가는 난관 속에서도 ‘이생’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는 ‘최 씨’의 모습을 통해 끝까지 단종에 대한 충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죽음을 초월하여 만남을 이어 나간다는 설정을 통해 자신의 이상을 실현시킬 수 없는 현실적 고뇌를 환상적, 초현실적 시공을 통해 예술적으로 승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5** 다음은 드라마 「도깨비」의 시놉시스이다. 글을 읽고 전기적 요소가 현대에까지 문학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의 소재로 다루어지는 까닭을 말해 보자.

영웅으로 살다 역적으로 몰려 죽어 가던 김신은 늙지도 죽지도 않는 생을 살아가게 된다. 그는 900여 년 동안 심장에 검을 꽂은 채 도깨비로 살며 그 검을 뽑을 수 있는 도깨비 신부를 찾아다녔다. 저주를 푸는 일이 쉬울 줄 알았지만 그가 만난 어떤 여자도 검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러던 어느 날 '도깨비 신부'라 주장하는 소녀가 나타난다.

- 대부분의 사람에게 현실의 한계와 굴레를 벗어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이다.
- 인간에게 이성적, 과학적인 면모 외에 감성적, 공상적인 면모도 있기에 당연한 것 같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신축년에 홍건적이 고려의 서울인 개성을 점령하자 임금은 복주(福州)로 피란을 갔다. 홍건적은 집을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고 가축을 잡아먹었다. 백성들은 부부, 친척끼리도 서로를 보호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달아나 숨은 채 각자 자기 살 길을 도모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생도 가족들을 데리고 외진 산골로 숨었는데 도적 한 명이 칼을 빼어 들고 그들의 뒤를 쫓아왔다. 이생은 달아나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최 씨는 도적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도적이 자신을 겁탈하려 하자 최 씨는 크게 꾸짖으며 말하였다.

“호귀(虎鬼)야, 나를 죽여 삼켜 버려라. 차라리 죽어 승냥이와 이리의 배 속에 들어갈지언정 어찌 개돼지 같은 놈의 짝이 되겠느냐.”

도적은 노하여 최 씨를 죽였다. 이생은 거친 들판에 숨어서 겨우 목숨을 보전하다가 얼마 후 도적이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사시던 옛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집은 이미 전쟁 통에 불타 버린 후였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 씨의 집으로 가 보았더니 행랑채만 덩그러니 남아 황량한 가운데 쥐들이 짹짹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이생은 슬픈 마음을 억누를 길이 없어 작은 누각에 올라가서 눈물을 흘리며 길게 탄식할 뿐이었다. 어느새 날이 저물었다. 그는 우두커니 홀로 앉아 지난날을 가만히 떠올려 보았지만 모든 게 한바탕 꿈만 같았다.

이경(二更)쯤 되어 달빛이 희미한 빛을 토하며 들보를 비추었다. 그런데 회랑 끝에서 웬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멀리서부터 들려오더니 차츰 가까워졌다. 발자국 소리가 이생 앞에 이르렀을 때 보니 바로 최 씨였다.

이생은 그녀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너무도 사랑하는 나머지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물었다.

“당신은 어디로 피란하여 목숨을 부지하였소?”

최 씨는 이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저는 본디 양가의 딸로서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들어 수농기와 바느질에 힘쓰고 시서(詩書)와 인의(仁義)의 방도를 배울 뿐이었습니다. 오로지 규문의 법도만 알았을 뿐 어찌 집 밖의 일을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당신께서 붉은 살구꽃이 핀 담장 안을 한 번 엿보신 후 제가 스스로 푸른 바다의 구슬을 바쳤지요. 꽃 앞에서 한 번 웃고는 평생의 은혜를 맺었고, 휘장 안에서 다시 만났을 때에는 은정이 백 년을 넘칠 것 같았지요.

말이 여기에 이르고 보니 슬프고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군요. 장차 평생을 함께하려고 하였는데 뜻밖의 횡액을 만나 구덩이에 툇굴게 될 줄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끝까지 짐승 같은 놈에게 몸을 내맡기지 않고 스스로 진흙탕에서 육신이 찢기는 길을 택하였지요. 그건 천성이 저절로 그렇게 한 것이지 인정으로야 차마 견딜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외진 산골짜기에서 당신과 헤어진 후로 짝을 잃고 홀로 날아가는 새의 신세가 된 것이 너무 한스러웠습니다. 집도 없어

지고, 부모님도 돌아가셨으니 고단한 혼백조차 의지할 곳이 없었지만 절의는 귀중하고 목숨은 가벼우니 쇠잔한 몸뚱이일 망정 치욕을 면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누가 마디마디 끊어져 재처럼 식어 버린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겠습니까? 그저 조각조각 끊어진 썩은 창자만 모아 두었을 뿐,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간과 쓸개는 땅바닥에 버려져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있지요. 가만히 지난날의 즐거움을 헤아려 보기도 하지만 오늘의 근심과 원한만이 마음에 가득 차 버렸습니다.

이제 추연(鄒衍)이 피리를 불어 적막한 골짜기에 봄바람을 일으켰으니 저도 천녀(倩女)의 혼이 이승으로 돌아왔듯이 이곳으로 돌아오렵니다. 봉래산에서 십이 년 만에 만나자는 약속을 이미 단단히 맺었고, 취굴(聚窟)에서 삼생(三生)의 향이 그윽이 풍겨 나오니 그동안 오래 떨어져 있던 정을 되살려서 옛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겠어요. 만약 당신이 아직도 옛 맹세를 잊지 않으셨다면 저는 끝까지 잘해 보고 싶어요. 당신도 허락하시는 거지요?”

- 김시습, '이생규장전'

**소담고등학교 (세종)**

**1. 이생과 최 씨의 재회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전란으로 인하여 두 사람은 가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헤어졌다.
- ㉡ 두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약속의 매개물을 통해 재회하게 된다.
- ㉢ 두 사람은 전란 중에 만난 동포의 도움으로 우연히 만나게 된다.
- ㉣ 최 씨는 이생과의 두 번째 만남을 통해 이생과의 영원한 이별을 고하고 있다.
- ㉤ 두 사람은 목숨보다 절개를 지키고자 한 최 씨의 선택으로 이별하게 되었다.

**소담고등학교 (세종)**

**2. 윗글에 나타난 전기적인 내용을 찾고 이를 통해 주제와 관련하여 작가가 의도하고자 한 바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십시오.**

<조건>

1. 윗글에 나타난 비현실적인 내용만을 쓸 것.
2. 작품의 주제를 언급할 것.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개성에 사는 이생은 어느 봄날 우연히 담 너머로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되고, 여인(최 씨) 역시 이생에게 마음이 끌린다. 편지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결국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 챈 이생의 아버지는 이생을 지방으로 보내고, 최 씨는 상사병을 얻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최 씨의 부모는 간곡한 딸의 청에 따라 이생의 부모를 설득하고 결국 이생과 최 씨는 혼례를 올린다.

신축년에 흥건적이 고려의 서울인 개성을 점령하자 임금은 복주(福州)로 피란을 갔다. 흥건적은 집을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고 가축을 잡아먹었다. 백성들은 부부, 친척끼리도 서로를 보호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달아나 숨은 채 각자 자기 살 길을 도모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생도 가족들을 데리고 외진 산골로 숨었는데 도적 한 명이 칼을 빼어 들고 그들의 뒤를 쫓아왔다. 이생은 달아나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최 씨는 도적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도적이 자신을 겁탈하려 하자 최 씨는 크게 꾸짖으며 말하였다.

㉠“호귀(虎鬼)야, 나를 죽여 삼켜 버려라. 차라리 죽어 승냥이와 이리의 배 속에 들어갈지언정 어찌 개돼지 같은 놈의 짝이 되겠느냐.”

도적은 노하여 최 씨를 죽였다. 이생은 거친 들뜬에 숨어서 겨우 목숨을 보전하다가 얼마 후 도적이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사시던 옛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집은 이미 전쟁 통에 불타 버린 후였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 씨의 집으로 가 보았더니 행랑채만 덩그러니 남아 황량한 가운데 쥐들이 짹짹대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이생은 슬픈 마음을 억누를 길이 없어 작은 누각에 올라가서 눈물을 흘리며 길게 탄식할 뿐이었다. 어느새 날이 저물었다. 그는 우두커니 홀로 앉아 지난날을 가만히 떠올려 보았지만 모든 게 한바탕 꿈만 같았다.

이경(二更)쯤 되어 달빛이 희미한 빛을 토하며 들보를 비추었다. 그런데 회랑 끝에서 웬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멀리서부터 들려오더니 차츰 가까워졌다. 발자국 소리가 이생 앞에 이르렀을 때 보니 바로 최 씨였다.

㉢이생은 그녀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너무도 사랑하는 나머지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물었다.

“당신은 어디로 피란하여 목숨을 부지하였소?”

최 씨는 이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중략 줄거리>

이생은 귀신이 되어 돌아온 최 씨와 함께 제물을 찾아 부모의 유해를 수습하고 살아 있던 때와 마찬가지로 사랑을 나누며 지낸다.

어느 날 저녁 최 씨가 이생에게 말했다.

“세 번이나 좋은 시절을 만났지만, 세상일은 뜻대로 되지 않고 어그러지지만 하네요. 즐거움이 다하기도 전에 갑자기 슬픈 이별이 닥쳐오니 말이에요.”

그러고는 마침내 오열하기 시작하였다. 이생은 깜짝 놀라서 물었다.

“무슨 일로 그러시오?” / 최 씨가 대답하였다.

“저승길의 운수는 피할 수가 없답니다. 하느님께서 저와 당신의 연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저희가 아무런 죄악도 저지르지 않았음을 아시고 이 몸을 환생시켜 당신과 지내며 잠시 시름을 잊게 해 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인간 세상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산사람을 미혹시킬 수는 없답니다.”

최 씨는 시녀를 시켜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루춘(玉樓春)>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면서 이생에게 술을 권하였다.

창과 방패가 눈에 가득한 싸움터

옥이 부서지고 꽃이 흩날리고 원앙도 짝을 잃네.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을 그 누가 묻어 주랴.

피에 젖어 떠도는 영혼 하소연할 곳 없어라.

무산 선녀가 고당에 한 번 내려온 후

깨졌던 거울이 거둬 갈라지니 마음만 쓰러라.

이제 한 번 이별하면 둘 사이 아득하니

하늘과 인간 사이에 소식마저 막히리라.

최 씨는 한 마디씩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물을 삼키느라 곡조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였다.

이생도 슬픔을 견잡지 못하여 말하였다.

“내 차라리 당신과 함께 저세상으로 갈지언정 어찌 무로히 홀로 살아남을 수 있겠소? 지난번 난리를 겪은 후 친척과 종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해가 들뜬에 버려져 있을 때 당신이 아니었다면 누가 부모님을 묻어 드릴 수 있었겠소? 옛 성현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이 살아 계실 때는 예로써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는 예로써 장사 지내야 한다.’라고 했는데 당신의 천성이 효성스럽고 인정이 두터웠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다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요. ㉣당신의 정성에 너무도 감격하지만 한편으로는 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참을 길이 없었소. 부디 그대는 인간 세상에 더 오래 머물다가 백 년 후 나와 함께 흠으로 돌아가시구려.”

최 씨가 대답하였다.

“당신의 목숨은 아직도 한참 더 남아 있지만 저는 이미 귀신의 명부에 이름이 실렸으니 이곳에 더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제가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하며 미련을 두어 운명의 법도를 어기게 된다면 단지 저에게만 죄과가 미치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도 누를 끼치게 될 거예요. 다만 제 유해

가 아무 곳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면 그것이나 거두어 비바람과 햇볕 아래 그냥 나뒹굴지 않게 해주세요.”

㉔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만 줄줄 흘렸다.

“서방님, 부디 몸 건강하세요.”

말을 마친 최 씨의 자취가 점차 희미해지더니 마침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이생은 그녀의 유골을 거두어 부모님 무덤 곁에 묻어 주었다. 장사를 지낸 뒤 이생도 최 씨와의 추억을 생각하다 병을 얻어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㉕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마다 애처로워하며 그들의 절의를 사모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 김시습, 「이생규장전」 -

**동탄고등학교 (경기)**

3. 윗글을 <보기>와 같이 도식화하여 설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차 만남	1차 이별
이생이 최 씨의 담장 안을 엿본 것이 계기가 되었으므로 고전소설의 우연적 성격이 드러난다. …………… ㉔	이생 부모의 반대로 이생과 최 씨가 헤어지게 된 것으로 봉건적인 사회 질서가 남녀 간의 자유로운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 …………… ㉕
2차 만남	2차 이별
최 씨가 상사병에 걸리자 딸을 살리고자 최 씨 부모의 노력으로 혼례를 올리는 것을 통해 여성인 최 씨가 남성인 이생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흥건적의 침입으로 인해 최 씨가 죽는데, 이는 이생과 최 씨의 사랑을 짓밟는 세계의 폭력을 의미한다. …… ㉖
3차 만남	3차 이별
최 씨가 환신하여 되돌아옴으로써 비현실적인 공간에서 사랑이 지속됨을 의미한다. …………… ㉗	최 씨가 저승으로 가야만 하는 운명에 의해 인물의 의지가 좌절되었음을 의미한다. …………… ㉘

- ㉑ ㉔                      ㉒ ㉕
- ㉓ ㉖                      ㉔ ㉗
- ㉕ ㉘

**동탄고등학교 (경기)**

4. ㉔에 드러난 인물의 상황 및 정서와 가장 유사한 것은?

㉑ 눈물 아롱아롱  
피리 불고 가신 님의 밟으신 길은  
진달래 꽃비 오는 서역 삼만 리  
흰 옷깃 여며 여며 가옵신 님의  
다시 오진 못하는 파촉 삼만 리  
- 서정주, 「귀촉도」 -

㉒ 청정한 하늘 끝  
푸르른 저 산맥 너머 떠나가는 새  
왜 날 올리나  
덧없는 가없는 저 눈부신 구름  
아아 묶인 이 가슴  
- 김지하, 「새」 -

㉓ 단풍잎 같은 몇 잎의 차장을 달고  
밤 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 곽재구, 「사평역에서」 -

㉔ 산평도 섬게 올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山) 절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 오리가 눈물 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 백석, 「여승」 -

㉕ 탄은, 밤을 새워 우는 별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게외다.  
- 윤동주, 「별 헤는 밤」 -

**동탄고등학교 (경기)**

5. ㉑ ~ 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㉑ ㉑ : 최 씨가 남녀 간의 의리를 목숨보다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㉒ ㉒ : 황량한 배경을 감각적으로 묘사하여 인물의 애달픈 심리를 엿볼 수 있다.
- ㉓ ㉓ : 죽은 사람이 이승으로 돌아오는 전기적인 요소를 통해 죽음마저도 둘의 사랑을 갈라놓지 못하는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㉔ ㉔ : 이생이 인간의 유한성을 깨닫고 최 씨와 영원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㉕ ㉕ : 사람들의 반응을 제시하여 여운을 남기면서 작가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어느 날 저녁 최 씨가 이생에게 말했다.

“㉠세 번이나 좋은 시절을 만났지만, 세상일은 뜻대로 되지 않고 어그러지기만 하네요. 즐거움이 다하기도 전에 갑자기 슬픈 이별이 닥쳐오니 말이에요.”

그러고는 마침내 오열하기 시작하였다. 이생은 깜짝 놀라서 물었다.

“무슨 일로 그러시오?”

최 씨가 대답하였다. / “저승길의 운수는 피할 수가 없답니다. 하느님께서 저와 당신의 연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저희가 아무런 죄악도 저지르지 않았음을 아시고 이 몸을 환생시켜 당신과 지내며 잠시 시름을 잊게 해 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인간 세상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산사람을 미혹시킬 수는 없답니다.”

최 씨는 시녀를 시켜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루춘(玉樓春)>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면서 이생에게 술을 권하였다.

창과 방패가 눈에 가득한 싸움터  
 옥이 부서지고 꽃이 흩날리고 원앙도 짝을 잃네.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을 그 누가 묻어 주랴.  
 피에 젖어 떠도는 영혼 하소연할 곳 없어라.

[A]

무산 선녀가 고당에 한 번 내려온 후  
 깨졌던 거울이 거듭 갈라지니 마음만 쓰러라.  
 이제 한 번 이별하면 둘 사이 아득하니  
 ㉡하늘과 인간 사이에 소식마저 막히리라.

최 씨는 한 마디씩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물을 삼키느라 곡조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였다.

“내 차라리 당신과 함께 저세상으로 갈지언정 어찌 무로히 홀로 살아남을 수 있겠소? 지난번 난리를 겪은 후 친척과 종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해가 들뜬에 버려져 있을 때 당신이 아니었다면 누가 부모님을 묻어 드릴 수 있었겠소? 옛 성현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이 살아 계실 때는 예로써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는 예로써 장사 지내야 한다.’라고 했는데 당신의 천성이 효성스럽고 인정이 두터웠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다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요. 당신의 정성에 너무도 감격하지만 한편으로는 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참을 길이 없었소. 부디 그대는 인간 세상에 더 오래 머물다가 백 년 후 나와 함께 흙으로 돌아가시구려.”

최 씨가 대답하였다. / “당신의 목숨은 아직도 한참 더 남아 있지만 저는 이미 귀신의 명부에 이름이 실렸으니 이곳에 더 오래 머물 수가 없답니다. 만약 제가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하며 미련을 두어 운명의 법도를 어기게 된다면 단지 저에게만 죄과가 미치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도 누를 끼치게 될 거예요. 다만 제 유해가 아무 곳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면 그것이나 거두어 비바람과 햇볕 아래 그냥 나뒹굴지 않게 해 주세요.”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만 줄줄 흘렸다.

“서방님, 부디 몸 건강하세요.” / ㉣말을 마친 최 씨의 자취가 점차 희미해지더니 마침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이생은 그녀의 유골을 거두어 부모님 무덤 곁에 묻어 주었다. 장사를 지낸 뒤 이생도 최 씨와의 추억을 생각하다 병을 얻어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마다 애처로워하며 그들의 절의를 사모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 김시습, 「이생규장전」

원주고등학교 (강원)

6.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시의 삽입을 통해 서술 방식의 통일성을 획득한다.
- ㉡ 인물의 내면적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 ㉢ 시간을 역순행적으로 구성하여 인물의 과거를 드러낸다.
- ㉣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와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 ㉤ 설화적 기법으로 마무리하여 독자들에게 여운을 느끼게 한다.

원주고등학교 (강원)

7. <보기>는 위 글을 바탕으로 드라마를 제작하기 위한 기획 의도이다. 기획 의도를 살리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3개)

<보기>  
 죽은 이와 사랑은 다소 생소한 소재이지만 원작에 최대한 충실하려고 한다. 때로는 비현실적인 요소가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 질 때가 있다. 이생과 최 씨의 사랑이 가벼운 만남에 익숙한 현대의 시청자들에게 삶을 새롭게 인식할 기회를 줄 것이다.

- ㉠ 이생과 최 씨의 사랑을 최대한 강조하되, 비현실적인 요소는 줄이는 것이 좋겠어.
- ㉡ 이생과 최 씨의 만남을 밝고 경쾌하게 묘사하여, 현대 시청자들의 감각과 기호에 맞출 필요가 있겠군.
- ㉢ 최 씨의 역할을 맡은 배우는 신비하고 기이한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현실을 잊게 해야겠군.
- ㉣ 이생이 최 씨의 정체를 알면서도 변함없이 그녀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시청자들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소중함을 깨닫게 해야겠군.
- ㉤ 뮤지컬적 요소를 가미해 본문에 삽입된 시는 최 씨가 실제로 노래를 하면서 자신의 현재 심리 상태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게 하면 좋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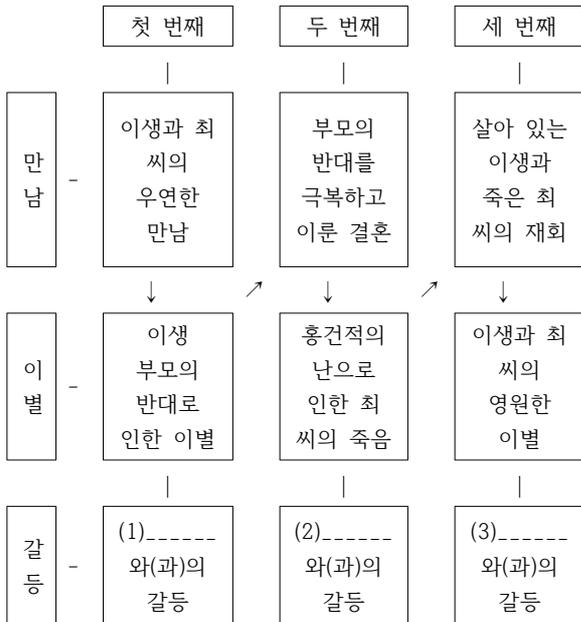
**원주고등학교 (강원)**

8.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 만남과 이별의 반복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 ㉡ : 두문불출(杜門不出)하는 인물의 세계관을 나타낸다.
- ㉢ ㉢ : 인물의 유교적 도덕규범을 담은 세계관을 보여준다.
- ㉣ ㉣ : 전기적(傳奇的) 소설의 특징이 나타난다.
- ㉤ ㉤ : 삶의 덧없음을 인식하며 불교적인 무상관이 나타난다.

**원주고등학교 (강원)**

9. 빈 칸에 들어갈 갈등의 종류를 서술하고, 내용 흐름상 갈등이 반복, 심화되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4) 갈등이 반복, 심화되는 이유 : .....

**동탄고등학교 (경기)**

10. 윗글의 삽입시 [A]에서 (1) '최 씨'의 처지가 드러난 부분을 찾아 쓴 후, (2) 거기에 드러난 '최 씨'의 처지와 (3) 삽입시의 기능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조건>

- '최 씨'의 처지가 드러난 부분을 그대로 쓸 것.
- '최 씨'의 처지를 시구에 맞게 서술할 것.
- '최 씨'의 처지가 드러난 부분, '최 씨'의 처지, 삽입시의 기능을 각각 1가지씩만 쓸 것.

**모락고등학교 (경기)**

11. 위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실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 ㉡ 최 씨의 적극적인 저항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 ㉢ 생사를 초월한 남녀의 애틋한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 ㉣ 대부분의 고전 소설의 결말과 유사한 구조로 전개되고 있다.
- ㉤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들의 말과 행동 및 생각까지 서술한다.

pt005pt (카톡 ID)  
내용 질문, 오류 신고

# “엄마의 말뚝 2” 분석 명단

## 핵심정리 | 작품의 짜임

- ▣ **길래** 현대소설, 연작소설
- ▣ **성격** 자전적, 회고적
- ▣ **주제** 전쟁의 상처와 극복 의지
- ▣ **특징**
  - \* 1인칭 시점으로 사건을 더욱 생생하게 드러냄.
  - \*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의 회상하는 역순행력 구성을 취함.
  - \*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개인의 피해 의식을 선명하게 드러냄.

- 발단** '나'가 집을 비운 사이 첫아이가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하고, 그 후 '나'는 곁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고가 '나'의 품과 마음이 곁에서 떠나 있을 때 일어났다고 믿게 된다.
- 전개** 어느 날 외출했다가 돌아온 '나'는 가족들에게 친정어머니가 눈길에서 넘어져 다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어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간다.

- 위기** 어머니는 다리가 부러져 수술을 받고, 수술 후 마취가 풀리면서 허공에 대고 소리치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 환각 속에서 6·25 전쟁 때 아들을 죽인 군인을 모습을 본 것이다.
- 절정** '나'는 오빠가 인민군 지하에서 어쩔 수 없이 의용군에 지원했다가 심장이 파열해진 채로 겨우 탈출했으나, 곧 군인에게 발각되어 총을 맞고 숨진 과거를 떠올린다.
- 결말** 어머니는 정신을 차린 후, 자신이 죽으면 시신을 화장하여 오빠의 유골을 부인 곳에 뿌려 달라고 부탁한다.

## 연작소설 「엄마의 말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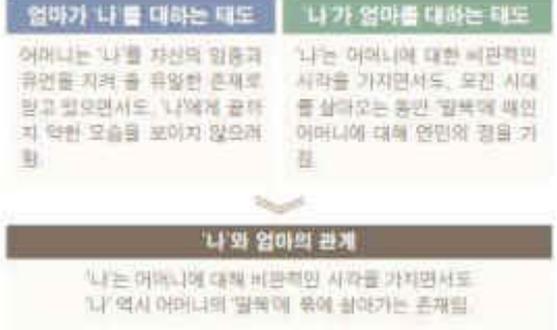
- 엄마의 말뚝 1**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시골에서 남편을 잃은 어머니가 어린 남매를 이끌고 고향을 떠나 고향 끝에 서을 변두리에 살의 터전을 마련하기까지의 이야기
- 엄마의 말뚝 2**  
중산층 전업주부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던 '나'가 엄마의 다리 부상을 계기로 과거 6·25 전쟁 당시 오빠를 인민군의 총살로 잃게 된 참담한 기억을 떠올리게 되는 이야기

- 엄마의 말뚝 3**  
화장되어 강물에 뿌려지기를 바랐던 엄마의 생전 소망과는 달리 돌아가신 후 서울 근교의 공원묘지에 묻히기까지의 이야기
- 엄마의 삶을 단순히 개인의 사적인 역사가 아니라 가족사, 민족사의 차원으로 보아줌.**

## '엄마의 말뚝'의 의미

1. 엄마와 가족의 서을 입성, 사대문 안에서 살아가겠다는 엄마의 태도
2. '나'가 엄마에게 느끼는 정신적 구속감
3. 오빠의 죽음을 기숨에 필적처럼 봐고 살아온 엄마의 한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효과 '나'와 엄마의 관계



역순행적 구성 '어머니는 아직도 두병 중이시다'의 의미



## “엄마의 말뚝 2” 크리틱 활동 문제

1 이 작품의 내용을 떠올리며 다음 질문에 답해 보자.

- 어머니가 환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은 어떤 것인가?  
▶인민군 군관이 오빠를 해치는(해치려는) 상황
- 어머니가 유언 삼아 '나'에게 부탁한 것은 무엇인가?  
▶묘지를 쓰지 말고 오빠처럼 해 달라는 것(확장하여 뺏가루를 고향 땅을 향해 뿌려 달라는 것)
- 어머니가 오빠의 유골을 강화도에 가서 뿌렸던 까닭은 무엇인가?  
▶분단으로 인해 갈 수 없는 고향 개풍군 땅이 보였기 때문

2 이 작품에서 시간의 흐름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정리하고, 그 효과가 무엇인지 파악해 보자.

이 작품은 '현재 → 과거 → 현재'의 시간적 흐름을 갖고 있다. 이런 구성을 통해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볼 수 있게 함으로써 사건이 갖는 비극성을 더 부각하여 보여 주고 있다.

**3 “어머니는 아직도 투병 중이시다.” 라는 마지막 구절의 뜻을 이 작품의 제목과 관련하여 짐작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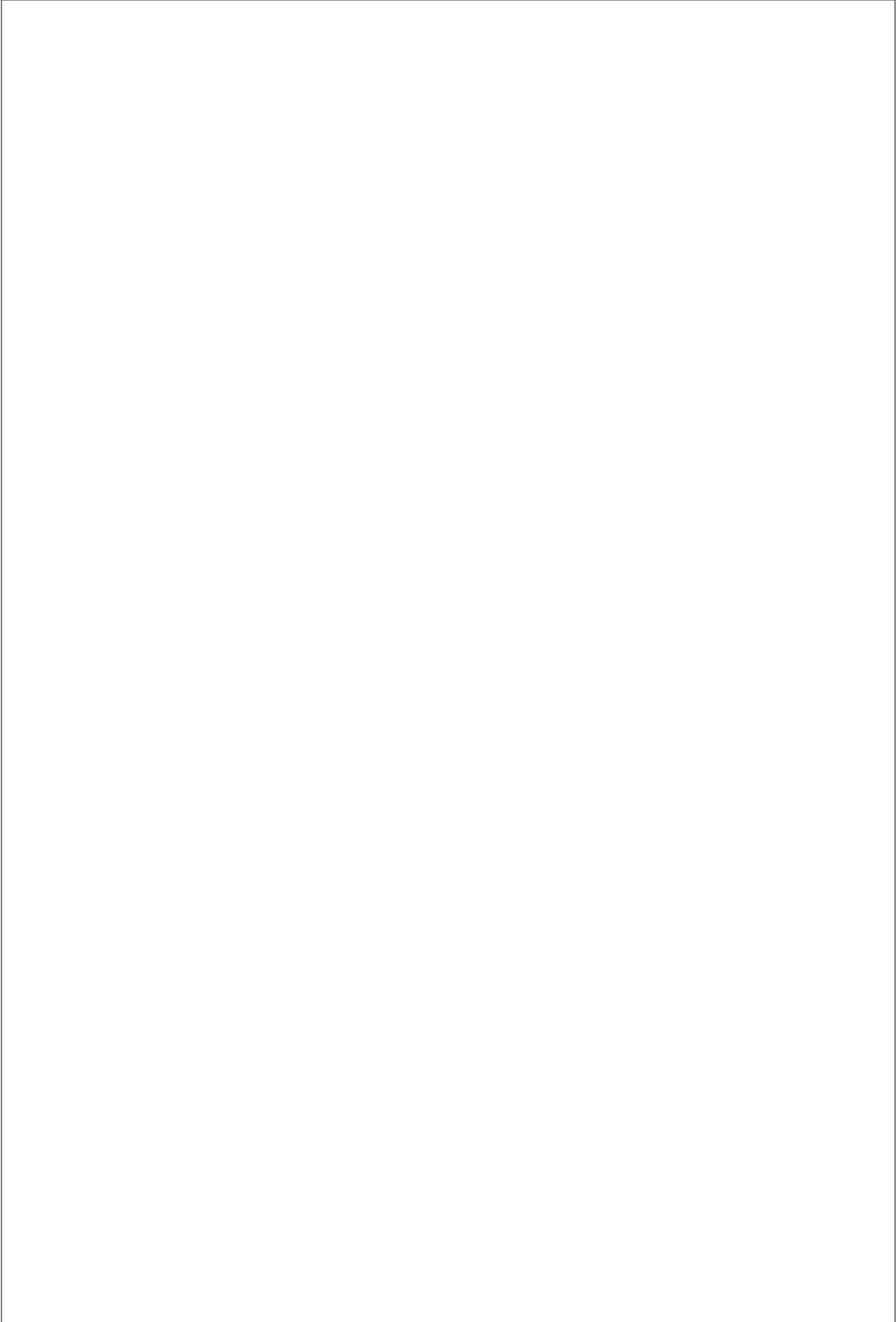
어머니가 진정으로 앓고 있는 병은 ‘분단과 전쟁으로 인한 한’이라고 할 수 있다. 제목에서 ‘말뚝’은 어머니의 가슴에 박혀 빠지지 않는 한과 상처를 가리킨다. 마지막 문장은 남북 분단이 고착되어 어머니의 상처와 한이 말뚝이 박힌 것처럼 여전히 아픔을 지닌 채 치유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4 이 작품의 다음 부분을 다시 읽고, ‘나’의 입장에서 어머니에 관해 서술하는 것이 주는 효과를 말해 보자.**

“군관 동무, 군관 선생님, 우리 집엔 여자들만 산다니까요.”  
어머니의 눈의 푸른 기가 애처롭게 흔들리면서 입가에 비굴한 웃음이 감돌았다. 나는 어머니가 환각으로 보고 있는 게 무엇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가엾은 어머니, 차라리 저승의 사자를 보시는 게 나았을 것을…….

이 작품은 등장인물인 ‘나’가 자신의 내면 심리와 어머니를 관찰한 점을 서술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취하고 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가 가까워 공감대 형성에 유리하며 독자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 위에서는 전쟁 중 아들을 잃고 여전히 고통을 안고 사는 어머니를 관찰한 것(처음 두 문장)과 어머니의 고통을 바라보는 ‘나’의 속마음(마지막 두 문장)을 함께 서술함으로써 전쟁의 상처를 더욱 선명하고 실감 나게 전달하고 있다.

Ⅲ. 엄마의 말뚝 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안 된다. 안 돼. 이노움. 안 돼. 너도 사람이냐? 이노움, 이노움.”

나는 벽까지 떠다 밀린 채 와들와들 떨면서 점점 심해가는 어머니의 광란(狂亂)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의 몸에서 수술한 다리만 빼고는 온몸이 노한 파도처럼 출렁였다. 그래서 더욱 그 다리는 어머니의 몸이 아닌 이물질처럼 괴기스러워 보였다. 어머니의 그 다리와 아들과의 동일시가 나한테까지 옮겨 붙은 것처럼 나는 그 다리가 무서웠다.

“안 된다, 이노움.”이라는 호통과 “군관 나오리, 군관 선생님, 군관 동무”라는 아부를 번갈아 하며 몸부림치는 서술에 마침내 링거 줄이 주삿바늘에서 빠져 버렸다. 혈관에 꽂힌 채인 주삿바늘을 통해 피가 역류해 환자복과 시트를 점점 물들였다. 피를 보자 어머니의 광란은 극에 달했다.

“이노움, 게 섰거라. 이노움, 나도 죽이고 가거라. 이노움.”

어머니는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이를 갈았다. 틀니를 빼놓아 잇몸만으로 이를 가는 시늉을 하는 게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 나 말고 누가 또 본 사람이 있을까. 이게 꿈이었으면, 꿈이었으면. 어머니는 이 세상 소리가 아닌 기성(奇聲)을 지르며 머리카락을 부득부득 쥐어뜯다가 오줌을 받아내는 호스도 다 뜯어 버렸다. 피비린내가 내 정신을 혼미케 했다. 퍼뜩 정신이 나서 구원을 청하려 나가려는데 어머니의 기성이 바깥까지 들렸던지 간호원이 뛰어왔다. 뒤미처 나이 지긋한 수간호원도 달려왔다. 어머니의 몸에 부착했던 의료 기구들을 원상 복구하기 위해선 여러 사람의 힘이 필요했다. 어머니는 힘이 장사였다. 내가 수간호원과 다른 간호원과 함께 어머니를 힘껏 짊어 누르는 동안 담당 간호원이 어머니가 뽑아낸 것들을 다시 삽입했다. 링거는 솟제 발등으로 옮겨 꽂았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까?”

나는 수간호원에게 원망스럽게 말했다.

“너무 심려 마세요. 흔하진 않지만 이런 특이 체질이 아주 드문 것도 아니니까요. 곧 나아지실 겁니다.”

수간호원이 이렇게 나를 위로했다. 어머니의 악몽이 특이 체질 탓이라고? 하긴 타인의 꿈에 대해 누가 감히 안다고 할 수 있으랴?

이제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발악으로 변한 어머니의 몸부림은 지칠 줄 몰랐다. 수간호원이 간호원에게 지시해서 침대 양쪽 난간을 올리고 끈을 가져다가 어머니의 사지를 꽂꽂 묶게 했다.

“따님 된 마음에 좀 안됐다 싶으셔도 참으세요. 이런 경우는 이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제 안심하고 눈 좀 붙이세요. 지레 병나시겠어요. 곧 정상으로 돌아오실 테니 염려 마시고…….”

그들은 어머니를 묶어 놓고 나를 위로하고 병실을 나갔다. 나는 지칠 대로 지쳐서 신 신은 채 보조 침대에 상반신을 꺾었다. 그러나 웬걸, 원한 맺힌 맹수처럼 으르렁대던 어머니가 예잇 하고 한번 기합을 넣자 사지를 묶은 끈은 우지직 끊어지기도 하고 혹은 풀리기도 했다. 어머니는 다

시 길길이 뛰기 시작했다. 참으로 불가사의한 괴력이었다. 목소리도 뜻이 통하는 말이 아니라 원한의 울부짖음과 독한 악담이 섞인 소름 끼치는 기성이었다. 조금도 과장 없이 간장을 도려내는 아픔과 함께 내 속에서도 불가사의한 괴력이 솟았다. 나는 이를 악물고 어머니에게로 돌진했다. 다시는 아무의 도움도 청하지 않고 어머니와 맞서리라 마음 먹었다. 이걸 아무의 도움도 간섭도 필요 없는 우리 모녀만의 것이다.

(나)

서울이 수복(收復)되고 화장장이 정상화되자마자 어머니는 오빠를 화장할 것을 의논해 왔다. 그때 우리와 합하게 된 올케는 아비 없는 아들들에게 무덤이라도 남겨 줘야 한다고 공동묘지라라도 이장할 것을 주장했다. 어머니는 오빠를 죽게 한 것이 자기 죄처럼, 젊어 과부 된 며느리한테 기가 죽어 지냈었는데 그때만은 조금도 양보할 기세가 아니었다. 남편의 임종도 못 보고 과부가 된 것도 억울한데 그 무덤까지 말살하려는 시어머니의 모진 마음이 야속하고 정떨어졌으려면 그런 기세 속엔 거역할 수 없는 위엄과 비통한 의지가 담겨 있어 종당엔 올케도 순종을 하고 말았다.

오빠의 삶은 연기가 되고 뼈는 한 줌의 가루가 되었다. 어머니는 앞장서서 강화로 가는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우린 묵묵히 뒤따랐다. 강화도에서 내린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서 멀리 개풍군 땅이 보이는 바닷가에 섰다. 그리고 지척(咫尺)으로 보이되 갈 수 없는 땅을 향해 그 한 줌의 먼지를 훨훨 날렸다. 개풍군 땅은 우리 가족의 선영이 있는 땅이었지만 선영에 못 묻히는 한을 그런 방법으로 풀고 있다곤 생각되지 않았다. 어머니의 모습엔 운명에 순종하고 한을 지그시 품고 삭이는 약하고 다소곳한 여자 티는 조금도 없었다. 방금 출전(出戰)하려는 용사처럼 씩씩하고 도전적이었다.

어머니는 한 줌의 먼지와 바람으로써 너무도 엄청난 것과의 싸움을 시도하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그 한 줌의 먼지와 바람은 결코 미약한 게 아니었다. 그야말로 어머니를 짓밟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간,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단이란 괴물을 홀로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어머니는 나더러 그때 그 자리에서 또 그 짓을 하란다. 이제 자기가 몸소 그 먼지와 바람이 될 테니 나더러 그 짓을 하란다. 그 후 30년이란 세월이 흘렀건만 그 괴물을 무화(無化)시키는 길은 정녕 그 짓밖에 없는가?

“너한테 미안하구나, 그렇지만 부탁한다.”

어머니도 그 짓밖에 물려줄 수 없는 게 진정으로 미안한 양 표정이 애달프게 이지러졌다.

아아, 나는 그 짓을 또 한 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어머니는 아직도 투병 중이시다.

-박완서, ‘엄마의 말뚝2’

**김포제일고등학교 (경기)**

**1.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액자식 구성을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장면의 빠른 전환을 통해 사건을 급격하게 진행시키고

있다.

- ③ 인물의 경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여 주제를 암시하고 있다.
- ④ 전쟁의 참상과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비극적 현실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⑤ 인물의 복잡한 심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적 배경을 사용하고 있다.

**김포제일고등학교 (경기)**

**2.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를 교체하며 새로운 사건을 도입하고 있다.
- ② 공간적 배경을 전환시켜서 긴박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③ 인물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묘사하여 사실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내적 독백을 통해 자신의 심리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어머니와 서술자의 다양한 과거 경험들이 보여주기 방식으로 나열되어 있다.

**김포제일고등학교 (경기)**

**3. 윗글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 ① 올케는 결국 어머니의 바람대로 ‘오빠’를 화장하게 되었다.
- ② 나는 개풍군이 보이는 바닷가에서 ‘오빠’의 유골을 뿌린 적이 있다.
- ③ 어머니는 악몽으로 인해 잠을 충분히 잘 수 없어서 입원하게 되었다.
- ④ 어머니는 환각 속에서 아들을 지켜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다.
- ⑤ 나는 내키지는 않지만 어머니의 유언대로 행동하게 될 것을 예감하고 있다.

**김포제일고등학교 (경기)**

**4. (가)를 영상화하기 위해 제시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철이: 공포스러운 상황을 나타내는 효과음을 삽입하는 것도 좋겠군.
- ② 영이: 병원을 배경으로 촬영해야하기 때문에 인물들의 의상도 그에 맞게 준비해야 될 것 같아.
- ③ 순이: 간호사들의 설득에 따라 안정을 되찾고 차분하게 대처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담아내야겠어.
- ④ 한이: 간호사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어머니를 침대에 묶는 극적인 상황에 어울릴만한 배경 음악을 삽입해야겠어.
- ⑤ 통이: 어머니 역할을 맡은 배우는 환자이긴 하지만 과거에 험싸인 상태이기 때문에 광기에 가까운 연기를 하도록 지시해야 될 것 같아.

**김포제일고등학교 (경기)**

**5. 윗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간호사가 등장하면서 사건의 국면이 전환되고 있군.
- ②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중심으로 역사적인 상황을 그리고 있군.
- ③ 병원에서의 분위기를 전달하며 사건의 긴장감을 고조하고 있군.
- ④ 과거와 현재를 대비시키며 선과 악에 대한 역전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군.
- ⑤ 상징적 소재를 활용하여 인물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군.

**김포제일고등학교 (경기)**

**6. ‘오빠’에 대한 다음의 설명을 참고할 때,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빠’는 학교에서는 수재소리를 듣고, 어머니에게는 효성이 지극했던 아들이었다. 한때 좌익에 몸담았다가 전향한 경험 때문에 6.25 전쟁 때, 서울이 인민군 치하에 놓이게 되자 곤란을 겪게 되었다. 인민군이 당장 목숨이 끊어지지 않게 다리만 겨냥하고 총을 쏘았고,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결국 며칠 만에 죽음에 이른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송두리째 인생이 망가져버린 비운의 인물이다.

- ① 어머니의 입원을 계기로 모녀에게는 ‘오빠’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게 된다.
- ② ‘오빠’에 대한 원통함과 집착이 어머니가 가장 약해진 순간에 되살아 난 것이다.
- ③ ‘오빠’가 죽어가며 느꼈을 아픔이 어머니의 다리로 전이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 ④ 어머니와 나는 ‘오빠’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무너지고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 ⑤ 윗글은 어머니와 딸이 ‘오빠’의 죽음에서 비롯된 상처를 견디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 죽거든 행여 묘지 쓰지 말거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상시처럼 잔잔하고 만만치 않았다.  
 “네? 다 들으셨군요?”  
 “그래, 마침 듣기 잘했다. 그렇잖아도 언제고 꼭 일러두려 했는데, 유언 삼아 일러두는 게니 잘 들어 뒀다 어김없이 시행토록 해라. 나 죽거든 내가 느이 오래비한테 해 준 것처럼 해 다오. 누가 뭐래도 그렇게 해 다오. 누가 뭐라든 상관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건 너밖에 없기에 부탁하는 거다.”  
 “오빠처럼요?”  
 “그래, 꼭 그대로, 그걸 설마 잊고 있진 않겠지?”  
 “잊다니요.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어머니의 손의 악력은 정정했을 때처럼 아니, 나를 끌고 농바위 고개를 넘을 때처럼 강한 줏대와 고집을 느끼게 했다. 오빠의 시신은 처음엔 무악재 고개 너머 별판의 밭머리에 가매장(假埋葬)했다. 행려병사자 취급하듯이 형식과 절차 없는 매장이었지만 무정부 상태의 텅 빈 도시에서 우리 모녀의 가냘픈 힘만으로 그것 이상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서울이 수복(收復)되고 화장장이 정상화되자마자 어머니는 오빠를 화장할 것을 의논해 왔다. 그때 우리와 합하게 된 올케는 아비 없는 아들들에게 무덤이라도 남겨 줘야 한다고 공동묘지라라도 이상할 것을 주장했다. 어머니는 오빠를 죽게 한 것이 자기 죄처럼, 젊어 과부 된 며느리한테 기가 죽어 지냈었는데 그때만은 조금도 양보할 기세가 아니었다. 남편의 임종도 못 보고 과부가 된 것도 억울한데 그 무덤까지 말살하려는 시어머니의 모진 마음이 야속하고 정떨어졌으려만 그런 기세 속엔 거역할 수 없는 위엄과 비통한 의지가 담겨 있어 종당엔 올케도 순종을 하고 말았다. 오빠의 삶은 연기가 되고 뼈는 한 줌의 가루가 되었다. 어

머니는 앞장서서 강화로 가는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우린 묵묵히 뒤따랐다. 강화도에서 내린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서 멀리 개풍군 땅이 보이는 바닷가에 섰다. 그리고 지척(咫尺)으로 보이되 갈 수 없는 땅을 향해 그 한 줌의 먼지를 훨훨 날렸다. 개풍군 땅은 우리 가족의 선영이 있는 땅이었지만 선영에 못 묻히는 한을 그런 방법으로 풀고 있다곤 생각되지 않았다. 어머니의 모습엔 운명에 순종하고 한을 지그시 품고 삭이는 약하고 다소곳한 여자가 티는 조금도 없었다. 방금 출전(出戰)하려는 용사처럼 씩씩하고 도전적이었다.

어머니는 한 줌의 먼지와 바람으로써 너무도 엄청난 것과 의 싸움을 시도하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그 한 줌의 먼지와 바람은 결코 미약한 게 아니었다. 그야말로 어머니를 짓밟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간,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단이란 괴물을 홀로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어머니는 나더러 그때 그 자리에서 또 그 짓을 하란다. 이젠 자기가 몸소 그 먼지와 바람이 될 테니 나더러 그 짓을 하란다. 그 후 30년이란 세월이 흘렀건만 그 괴물을 무화(無化)시키는 길은 정녕 그 짓밖에 없는가?

㉠“너한테 미안하구나, 그렇지만 부탁한다.”

어머니도 그 짓밖에 물려줄 수 없는 게 진정으로 미안한 양 표정이 애달프게 이지러졌다.

아아, 나는 그 짓을 또 한 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어머니는 아직도 투병 중이시다.

**당곡고등학교 (서울)**

**7. 위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세 편의 중단편들로 이루어진 연작소설 중 두 번째 작품이다.
- ② 연작 속 세 작품이 모두 연관되어 있으므로 한 편이라도 빠지면 서사적 완결성이 부족하다.
- ③ 작가 박완서는 한국 전쟁과 민족 분단, 황금만능주의에 대한 비판을 담은 작품을 많이 썼다.
- ④ 제목 ‘엄마의 말뚝’은 아들의 죽음으로 가슴에 말뚝처럼 박힌 엄마의 한을 의미한다.
- ⑤ 전쟁에 대한 체험을 개인의 것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민족적인 보편성으로 확장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당곡고등학교 (서울)**

**8. 윗글의 서술 전략만을 모두 고른 것은?**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ㄱ.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상황을 실감 나게 묘사하자.</li> <li>ㄴ. 대화와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자.</li> <li>ㄷ. 시대적 배경을 제시해 사회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자.</li> <li>ㄹ. 인물의 심리와 관련된 서술을 추가해 독자의 이해를 돕자.</li> <li>ㅁ. 사건 전개에서 인물의 내적 갈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자.</li> </ol> |
|--|

-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ㄹ, ㅁ

**당곡고등학교 (서울)**

**9. ㉠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어머니의 시신을 화장해, 강화도에서, 갈 수 없는 고향 쪽으로 뺏가루를 날리는 일을 의미한다.
- ② 어머니가 의지와 무관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과 그 비극을 극복하고자 하는 행위이다.
- ③ 어머니가 우리 가족의 선영에 묻히고 싶으나 그럴 수 없는 한을 푸는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 ④ 어머니가 나에게 ‘그 짓’을 부탁하는 것은 전쟁의 상처와 분단의 아픔을 상기시키는 행위이다.
- ⑤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형식적 구호로만 행세하고 있는 ‘통일’을 생생하게 꿈꾸게 하기 위한 행위이다.

**당곡고등학교 (서울)**

**10. 윗글을 감상하는 태도로 잘못된 것을 2가지 고르면?**

- ① 문학은 설명문이나 논설문 같은 논리적인 글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를 논리적으로 따지거나 타당성을 평가하면 곤란하다.
- ② 자신이 해석하고 평가한 결과를 창의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주제적으로 문학을 향유하고 생활화하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 ③ 작품을 감상한 후에는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감상의 폭을 넓히고 능동적으로 문학을 향유해야 한다.
- ④ 작품을 수용할 때 무조건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기보다는, 작품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와 비교하면서 작품에 반영된 가치를 주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 ⑤ 작품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사람의 관점이나 감상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타인의 해석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사곡고등학교 (경북)**

**11. ㉠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오빠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한 엄마의 증세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 ② 자신이 죽어서나마 먼저 죽은 아들과 함께 하고 싶은 어머니의 의지만은 꺾을 수 없는 상태이다.
- ③ 한국 전쟁으로 신체적 질병을 얻은 유공자들에게 국가적 보상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
- ④ 어머니의 광란을 이해하지 못하는 타인들에게는 우리 가족의 비극적인 사연이 병으로 인식되고 있다.
- ⑤ 한국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아픔은 치유되지 않은 채 여전히 우리 사회에 깊은 한으로 남아 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나는 어머니의 참혹한 공포를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어 이렇게 속으로 부르짖었다. 그놈이 내 눈에까지 보이는 일이 일어날까 봐 더더욱 겁이 났다.

그러나 ㉠그는 사라지기는커녕 다가오고 있음이 분명했다. 어머니의 부릅뜬 눈동자의 초점 거리가 그걸 말해 주고 있었다. 맙소사, 나 혼자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게 되다니.

“㉠그놈 또 왔다. 뭘 하고 있냐? 느이 오래빌 숨겨야지, 어서.”

“엄마, 제발 이러시지 좀 마세요. 오빠가 어디 있다고 숨겨요?”

“그럼 느이 오래빌 벌써 잡아갔냐.”

“엄마, 제발.”

어머니의 손이 사방을 더듬었다. 그러다가 ㉡붕대 감긴 자기의 다리에 손이 닿자 날카롭게 속삭였다.

“가엾은 내 새끼 여기 있었구나. 꼼짝 말아. 다 내가 당할 테니.”

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다리를 감싸는 시늉을 했다. 그때부터 어머니의 다리는 어머니의 아들이었다. 어머니는 온몸으로 그 다리를 옹호(擁護)하면서 어머니의 적을 노려보았다. 어머니의 적은 저승의 사자가 아니었다.

“군관 동무, 군관 선생님, 우리 집엔 여자들만 산다니까요.”

어머니의 눈의 푸른 기가 애처롭게 흔들리면서 입가에 비굴한 웃음이 감돌았다. 나는 어머니가 환각으로 보고 있는 게 무엇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가엾은 어머니, 차라리 저승의 사자를 보시는 게 나았을 것을…….

어머니는 그 다리를 어디다 숨기려는지 몸부림쳤다. 그러나 어머니의 다리는 요지부동(搖之不動)이었다.

# “이옥설” 분석 방법

핵심정리		작품의 짜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갈래: 고전수필, 한문수필, 설(說)</li> <li>성격: 경험적, 교훈적</li> <li>주제: 잘못을 미리 알고 고쳐 나가는 자세의 중요성</li> <li>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찰의 내용을 먼저 제시하고 그에 대한 의견 및 뒷받침이 구성됨.</li> <li>모순의 재발에서 얻은 깨달음을 다른 상황에 적용해 보자는 귀추의 방식에 사용함.</li> </ul> </li> </ul>	<table border="1"> <tr> <td>처음</td> <td>나의 경험 낮은 행량채를 꾸리하게 됨.</td> <td>대상 자체의 분석</td> </tr> <tr> <td>중간</td> <td>깨달음 1 - 사람의 품 잘못을 바로 고치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 되지만, 잘못을 바로 고치면 좋은 사람이 됨.</td> <td>대상이 가진 의미 유추</td> </tr> <tr> <td>끝</td> <td>깨달음 2 - 나라의 정치 백성에게 꼭 됨을 알고도 재해 개혁하지 않으면 분란이 일으키기 어려움.</td> <td>대상의 의미 확장</td> </tr> </table>	처음	나의 경험 낮은 행량채를 꾸리하게 됨.	대상 자체의 분석	중간	깨달음 1 - 사람의 품 잘못을 바로 고치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 되지만, 잘못을 바로 고치면 좋은 사람이 됨.	대상이 가진 의미 유추	끝	깨달음 2 - 나라의 정치 백성에게 꼭 됨을 알고도 재해 개혁하지 않으면 분란이 일으키기 어려움.	대상의 의미 확장
처음	나의 경험 낮은 행량채를 꾸리하게 됨.	대상 자체의 분석								
중간	깨달음 1 - 사람의 품 잘못을 바로 고치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 되지만, 잘못을 바로 고치면 좋은 사람이 됨.	대상이 가진 의미 유추								
끝	깨달음 2 - 나라의 정치 백성에게 꼭 됨을 알고도 재해 개혁하지 않으면 분란이 일으키기 어려움.	대상의 의미 확장								

설 & 기		경험을 통한 깨달음과 유추												
<p><b>설(說)</b></p> <p><b>배석과 서술</b></p> <p>자기 의사로 뜻과 이치를 세설하고 상세하게 서술하는 문체</p> <p><b>우의적인 글</b> (경설, 추위설, 유건설, 뇌설 등)</p>	<p><b>기(記)</b></p> <p><b>사실을 그대로 리는 글</b></p> <p>사물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여 기념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둔 글</p> <p>인물, 시간, 공간, 특수경험 등 (대각명승기, 산수유기, 서화 감상기, 인사담기 등)</p>	<table border="1"> <tr> <td>현량채</td> <td>사람</td> <td>정치</td> </tr> <tr> <td>비가 새는 것을 고치지 않음.</td> <td>잘못을 바로 잡지 않음.</td> <td>백성에게 재가 되는 것을 개혁하지 않음.</td> </tr> <tr> <td>나우기 씩음.</td> <td>나쁜 사람이 됨.</td> <td>백성이 못 살게 됨.</td> </tr> <tr> <td>재해 수리해야 함.</td> <td>잘못을 재해 바로 잡아야 함.</td> <td>나라가 위태해지기 전에 개혁해야 함.</td> </tr> </table>	현량채	사람	정치	비가 새는 것을 고치지 않음.	잘못을 바로 잡지 않음.	백성에게 재가 되는 것을 개혁하지 않음.	나우기 씩음.	나쁜 사람이 됨.	백성이 못 살게 됨.	재해 수리해야 함.	잘못을 재해 바로 잡아야 함.	나라가 위태해지기 전에 개혁해야 함.
현량채	사람	정치												
비가 새는 것을 고치지 않음.	잘못을 바로 잡지 않음.	백성에게 재가 되는 것을 개혁하지 않음.												
나우기 씩음.	나쁜 사람이 됨.	백성이 못 살게 됨.												
재해 수리해야 함.	잘못을 재해 바로 잡아야 함.	나라가 위태해지기 전에 개혁해야 함.												

이옥설과 교술 갈래	
<b>교술 갈래</b>	실재하는 사물이나 사건을 통해 작가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전달한 글
<b>이옥설</b>	작가가 직접 겪은 낮은 행량채 수리 경험을 바탕으로 깨닫게 된 삶의 이치를 서술

# “이옥설” 크리틱 활동 문제

## 1 ‘나’가 집을 수리하게 된 원인과 그 과정을 정리해 보자.

\*원인: 허물어진 행랑채 세 칸이 제대로 버티지 못하게 됨.

\*과정: 제때 수리하지 못한 두 칸은 서까래, 추녀, 기둥, 들보가 모두 썩어 경비가 많이 들었으나, 제때 수리한 한 칸은 재목이 온전하여 경비가 적게 들.

## 2 ‘나’가 집을 수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두 가지 상황을 찾아보자.

① 사람이 잘못을 알고서 고치는 것

② 나라의 정치에 있어서 백성에게 심한 해가 될 것을 개혁하는 것

## 3 이 작품의 내용 전개 방식을 파악하고, ‘나’가 이 작품을 읽는 이에게 전하려고 한 내용을 말해 보자.

낡은 행랑채를 수리한 경험에서 유추하여 삶의 이치를 깨닫게 되었고, 그 깨달음에서 유추하여 다시 나라의 정치로 확대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나’는 잘못을 미리 알고 고쳐 나가는 자세의 중요성을 전하고자 하였다.

## 4 다음은 신영복의 「나는 걷고 싶다」이다. 「이옥설」과 비교하며 교술 갈래의 특성을 파악해 보자.

계수님께

작년 여름, 비로 다 내렸기 때문인지 눈이 인색한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내리면 눈 뒤끝의 매서운 추위는 죄다 우리가 입어야 하는데도 눈 한번 전하게 안 오나, 젊은 친구들 기다려 쌓더니 얼마 전 사흘 내리 눈 내리는 날 기어이 운동장 구석에 눈사람 하나 세웠습니다.

옥뜰에 서 있는 눈사람. 연탄 조각으로 가슴에 박은 글귀가 섬뜩합니다.

“나는 걷고 싶다.”

있으면서도 걷지 못하는 우리의 다리를 깨닫게 하는 그 글귀는 단단한 눈 멍치가 되어 이마를 때립니다.

내일 모레가 2월 초하루. 눈사람도 어디론가 가고 없고 먼 데서 봄이 오는 기척이 들립니다.

1월 25일·부 편지와 돈 받았습니다. 계수님의 건강과 발전을 빕니다.

1988. 1. 30.

-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 (1) 두 작품의 형식상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해 보자.

\*공통점: 글쓰기가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삶의 이치에 대해 깨달은 바를 표현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교술 문학의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차이점: 「이옥설」은 ‘작가의 일상적 경험 - 작가의 의견과 생각’이라는 2단 구성의 ‘설’이라는 한문학의 관습을 따른 것이다. 이 글은 편지라는 일상의 비형식적인 글을 토대로 자신의 안부를 전하며 경험과 깨달음을 함께 전한다는 면에서 좀 더 자유로운 형식을 취하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집에 오래 지탱할 수 없이 퇴락한 행랑채 세 칸이 있어서 나는 부득이 그것을 모두 수리하게 되었다. 이때 앞서 그중 두칸은 비가 샌 지 오래 되었는데, 나는 그것을 알고도 어물 어물하다가 미처 수리하지 못하였고, 다른 한 칸은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급히 기와를 갈게 하였다.

③ 그런데 수리하고 보니,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서까래, 추녀, 기둥, 돌보가 모두 썩어서 못 쓰게 되었으므로 경비가 많이 들었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은 것은 제목들이 모두 완전하여 다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경비가 적게 들었다.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한다. 사람의 몸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잘못을 알고서도 곧 고치지 않으면 몸의 패망하는 것이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이상으로 될 것이고, 잘못이 있더라도 고치기를 꺼려하지 않으면 다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집 제목이 다시 쓰일 수 있는 이상으로 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사도 이와 마찬가지다. 모든 일에 있어서, 백성에게 심한 해가 될 것을 머뭇거리고 개혁하지 않다가, 백성이 못살게 되고 나라가 위태하게 된 뒤에 갑자기 변경하려 하면, 곧 붙잡아 일으키기가 어렵다.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 이규보, 「이옥설」

**가락고등학교 (서울)**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교훈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한문 수필이다.
- ㉡ 대조와 설의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 생각의 대상을 점차 좁혀가며 구체적인 깨달음에 도달하고 있다.
- ㉣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비슷한 다른 것에 유추하여 제시하고 있다.
- ㉤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삶의 가치와 사물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주고 있다.

**가락고등학교 (서울)**

2. 윗글에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잘못은 가능하면 발견한 즉시 바로 고쳐야 한다.
- ㉡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 ㉢ 매사에 행동을 조심하여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잘못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 ㉤ 잘못이 많은 사람이라도 고치려고 노력하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가락고등학교 (서울)**

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할 때, 윗글에 쓰인 소재의 상징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170년 정중부 등의 무인(武人)들이 문신(文臣)들을 학살하고 정권을 잡았다. 이 무인 정권은 1270년까지 약 100년간 유지되었는데, 이 시기에 정치는 혼란스럽고 몽골의 침입까지 겹쳐서 백성들의 삶은 매우 어려웠다. 이때 이규보는 다른 문신들과 달리 무인 정권에 참여하여 높은 벼슬을 지냈다. 그가 권세를 위하여 권력자에게 아부한 것인지, 아니면 피폐한 백성들을 위하여 한 몸을 던진 것인지를 두고 많은 논란이 생긴 것은 이 때문이다.

- ㉠ 집 - 고려 왕조
- ㉡ 재목 - 정치를 하는 사람
- ㉢ 경비 - 백성들의 부담과 고통
- ㉣ 비가 새는 상황 - 혼란스러운 당시의 정치 상황
- ㉤ 우선 집을 수리하는 일 - 무인정권을 배척하는 일

**가락고등학교 (서울)**

4. ㉡과 같은 상황에 쓸 수 있는 속담을 모두 고른 것은?

- ㉠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
- ㉡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 ㉢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 ㉣ 사후 약방문
- ㉤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 ㉠ ㉡, ㉢, ㉣    ㉡ ㉢, ㉣, ㉤    ㉢ ㉣, ㉣, ㉤
- ㉠ ㉣, ㉤, ㉥    ㉡ ㉣, ㉤, ㉥

pt005pt (카톡 ID)  
내용 질문, 오류 신고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집에 오래 지탱할 수 없이 퇴락한 행랑채 세 칸이 있어서 나는 부득이 그것을 모두 수리하게 되었다. 이때 앞서 그 중 두칸은 비가 샌 지 오래 되었는데, 나는 그것을 알고도 어물어물하다가 미처 수리하지 못하였고, 다른 한 칸은 한 번 밖에 비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급히 기와를 갈게 하였다.

그런데 수리하고 보니,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서까래, ㉣추녀, ㉤기둥, ㉥돌보가 모두 썩어서 못 쓰게 되었으므로 경비가 많이 들었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은 것은 제목들이 모두 완전하여 다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경비가 적게 들었다.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한다. 사람의 몸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잘못을 알고서도 곧 고치지 않으면 몸의 패망하는 것이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이상으로 될 것이고, 잘못이 있더라도 고치기를 꺼려하지 않으면 다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집 제목이 다시 쓰일 수 있는 이상으로 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사도 이와 마찬가지다. 모든 일에 있어서, 백성에게 심한 해가 될 것을 머뭇거리고 개혁하지 않다가, 백성이 못살게 되고 나라가 위태하게 된 뒤에 갑자기 변경하려 하면, 곧 붙잡아 일으키기가 어렵다.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 이규보, '이옥설'

**동방고등학교 (대전)**

5.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유비추리의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한다.
- ㉡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혼란한 사회를 비판한다.
- ㉢ 타인의 견해를 인용한 뒤 그에 대한 깨달음을 표현한다.
- ㉣ 사물의 주관적 외양 묘사를 통해 게으른 자에 대해 경계한다.
- ㉤ 사회의 문제점을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하여 해결책을 제시한다.

**동방고등학교 (대전)**

6. <보기>를 참고하여 이 글을 감상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170년 정중부 등의 무인(武人)들이 문신(文臣)들을 학살하고 정권을 잡았다. 이 무인 정권은 1270년까지 약 100년간 유지되었는데, 이 시기에 정치는 혼란스럽고 몽골의 침입까지 겹쳐서 백성들의 삶은 매우 어려웠다. 이때 이규보는 다른 문신들과 달리 무인 정권에 참여하여 높은 벼슬을 지냈다. 그가 권세를 위하여 권력자에게 아부한 것인지, 아니면 피폐한 백성들을 위하여 한 몸을 던진 것인지 두고 많은 논란이 생긴 것은 이 때문이다.

- ㉠ ㉡은 고려 왕조를 말한다
- ㉢ ㉣은 혼란스러운 정치를 말한다.
- ㉤ ㉥은 나라의 백성을 말한다.
- ㉦ ㉧은 나라의 인재를 말한다.
- ㉨ ㉩은 백성들의 고통을 말한다.

**동인고등학교 (부산)**

7. 위 글의 전개 방식과 가장 유사한 것은?

- ㉠ 휘어진 나무는 어릴 때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성장한 다음에는 바로잡기가 쉽지 않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어렸을 때 잘못을 고쳐야지 성인이 된 후에는 고치기가 어렵다.
- ㉡ 희곡은 소설과 마찬가지로 그 표현 수단이 언어를 매개로 한 문학의 한 분야이며, 일정한 인물과 사건 그리고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소설과 다를 바가 없다.
- ㉢ 소설에서의 개연성이란, 현실 세계에 있음직한 가능성을 말하는 개념이다.
- ㉣ 두루마기 격으로 기모노를 둘렀고 그 안에서 옥약목 저고리가 내어 보이며, 아랫도리엔 중국식 바지를 입었다.
- ㉤ 로봇은 인간의 편리와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로봇 중에는 위험한 일을 도맡아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고도의 정밀 작업을 하는 로봇도 있다.

**동인고등학교 (부산)**

8. 우리나라의 과거 역사에서 문신들은 학문적 수준이 낮은 무신들을 열등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아래의 글'에 나타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규보가 문인으로서의 자존심을 버리고 무인 정권에 참여한 것은 두고 동료 문신들은 이규보를 비난하는 말들을 많이 했으리라고 상상해 볼 수 있다. 그 비난에 대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위 글을 썼다고 가정하고, 위 글과 '아래의 글'의 내용을 이용하여 자기를 변호하는 글을 쓰려고 한다. (1)~(3)에 답하십시오.

1170년 정중부 등의 무인(武人)들이 문신(文臣)들을 학살하고 정권을 잡았다. 이 무인 정권은 1270년까지 약 100년간 유지되었는데, 이 시기에 정치는 혼란스럽고 몽골의 침입까지 겹쳐서 백성들의 삶은 매우 어려웠다. 이때 이규보는 다른 문신들과 달리 무인정권에 참여하여 높은 벼슬을 지냈다. 그가 권세를 위하여 권력자에게 아부한 것인지, 아니면 피폐한 백성들을 위하여 한 몸을 던진 것인지를 두고 많은 논란이 생긴 것은 이 때문이다.

(1) 비가 새어 집이 퇴락해 가는 상황은 무엇을 비유(유추)하는지 쓰시오.

(2) (비가 새는 집을) 그대로 두는 것은 무엇을 비유(유추)하는지 쓰시오.

(3) 이규보의 입장에서 무인 정권이 싫어서 몸을 낮추고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쓰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집에 오래 지탱할 수 없이 퇴락한 행랑채 세 칸이 있어서 나는 부득이 그것을 모두 수리하게 되었다. 이때 그중 두 칸은 비가 샌 지 오래 되었는데, 나는 그것을 알고도 어물어물하다가 미처 수리하지 못하였고, 다른 한 칸은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급히 기와를 갈게 하였다.

그런데 수리하고 보니,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서까래, 처녀, 기둥, 돌보가 모두 썩어서 못 쓰게 되었으므로 경비가 많이 들었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은 것은 제목들이 모두 완전하여 다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경비가 적게 들었다.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한다. 사람의 몸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잘못을 알고서도 곧 고치지 않으면 몸이 패망하는 것이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이상으로 될 것이고, 잘못이 있더라도 고치기를 꺼려지 않으면 다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집 제목이 다시 쓰일 수 있는 이상으로 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사도 이와 마찬가지다. 모든 일에 있어서, 백성에게 심한 해가 될 것을 머뭇거리고 개혁하지 않다가, 백성이 못살게 되고 나라가 위태하게 된 뒤에 갑자기 변경하려 하면, 곧 붙잡아 일으키기가 어렵다.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 이규보, 「이옥설」

**문정고등학교 (서울)**

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경험에서 출발하여 점차 의미를 확대해 가며 서술하고 있다.
- ㉡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상상을 덧붙여서 글을 완성하였다.

- ㉢ 사실을 먼저 제시하고 뒤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고 있다.
- ㉣ 집 수리의 경험을 사람의 경우나 정치에 적용하여 사고를 심화하고 있다.
- ㉤ 글의 화자는 글쓴이 자신으로 글의 전면에서 드러나 있다.

**문정고등학교 (서울)**

10. <보기>에서 윗글과 관계있는 것끼리 바르게 묶인 것은?

<보기>

㉠. 한 가지 유사성을 토대로 다른 것도 유사하리라고 판단하는 유추의 발상이 적용되고 있다.

㉡. 사물의 이치를 풀이하고 의견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서술하는 한문학의 한 갈래이다.

㉢. 인물, 사건, 배경을 제시하여 현장감을 살리고 있다.

㉣. 함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교훈성을 높이고 있다.

- ㉠ ㉡, ㉢
- ㉡ ㉢, ㉣
- ㉢ ㉡, ㉣
- ㉣ ㉡, ㉢

**문정고등학교 (서울)**

11. 윗글에 나타난 깨달음을 다음의 조건에 따라 서술하시오.

<조건>

㉠. 하나의 완성된 문장으로 쓸 것

㉡. 본문의 구절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자신의 언어로 표현할 것

**성동고등학교 (서울)**

1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구체적인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인간사 일반에 적용하여 이치를 밝히고 있다.
- ㉡ 사고의 대상이 '집-사람의 몸-나라의 정사'로 확대되고 있다.
- ㉢ 체험을 서술하고 그에 대한 깨달음을 나타내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 ㉣ 백성에게 해가 되는 개혁은 나라를 위태롭게 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 ㉤ '비가 새는 행랑채'와 '사람의 잘못', '백성을 쯤먹는 무리'가 가진 비슷한 점을 근거로 주장을 이끌고 있다.

# “현실 비판” 문학 명칭

## 핵심정리

- ▶ **갈래** 희곡
- ▶ **성격** 상징적, 비판적
- ▶ **주제** 방향성을 상실한 채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과 인간 소외
- ▶ **특징**
  - 특정환 공간 내에서 사건이 전개되며 상반된 가치관을 지닌 인물들이 등장함.
  - 상징을 통해 현대 산업 사회의 문제를 우회적으로 비판함.

## 작품의 짜임

<b>발단</b>	고 일에 대한 자양과 기입의 의견이 충돌함.
<b>전개</b>	기입이 상자를 바꿔 놓음.
<b>위기</b>	바꿔 놓은 상자에 대한 소식이 없자 자양은 불안해함.
<b>절정</b>	기입이 다량과 함께 창고를 피남.
<b>결말</b>	자양은 자신의 삶에 회의하다 다시 창고 일에 몰두함.

## 등장인물 소개

<b>자양</b>	참고지기이자 노동자 꼼꼼하고 성실한 태도로 자신의 일을 수행하여 신념을 지켜 나가는 보수적이고 고지식한 원칙주의자 티격태격하면서도 기입을 따뜻하게 챙겨줌.
	참고지기이자 노동자 현실에 대한 회의와 불안으로 요령을 부리며 쾌락을 추구함. 일을 것은 자기 배짱뿐이라고 생각

<b>윤전사</b>	말을 배개로 젊은 노동자들과 노름을 하여 이익을 얻는 등 세속적이며 현실적인 인물. 일의 특성상 비교적 다양한 경험을 함.
<b>다량</b>	브릭윤전사의 딸 쾌락을 추구하는 인물로 근처 모든 참고지기와 사귄 정도로 바람둥이 처음에는 근처 참고지기들과 다른 자양에게 관심을 갖지만 그의 태도에 실망하고 기입과 피남.

## 자양과 기입의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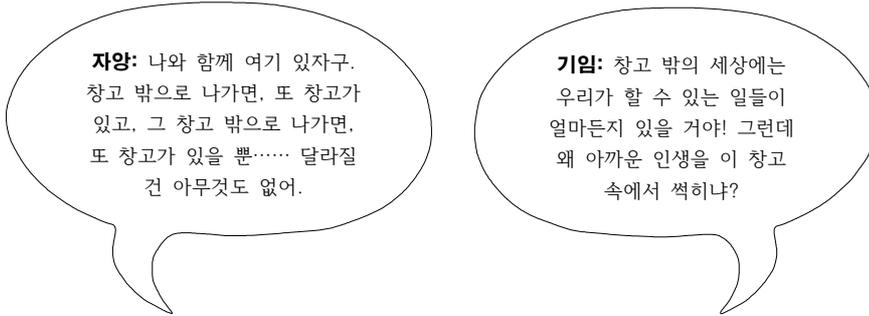
자양	기입
참고 인을 벗어나려는 생각 없음. 나가 봐도 별 수 없다고 생각	참고 밖 세상을 새로운 삶을 열어 갈 공간으로 인식
노동적으로 전락해 버린 현대인을 상징	규율과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저항을 보여줌.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잃어 버린 현대인의 항답한 모습	

## 무대 공간과 소재

창고	본업화되고 획일화된 현대 산업 사회
상차속 부품	부속품으로 전락하고 만 현대인
땀긴 양지	누구도 문제를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사회의 모습
북어 대가리	자양의 모습, 황폐한 현대인의 삶과 모습

## “복어 대가리” 크라시 할양 문제

1 다음 대사를 읽고 ‘창고 밖 세상’ 을 바라보는 등장인물의 생각이나 태도를 비교해 보자.



- 자양 → 창고 안을 벗어나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나가 보아도 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 기임 → 창고 밖 세상을 새로운 삶을 열어 갈 공간으로 인식한다.

2 다음 설명을 바탕으로 이 작품에서 무대 공간과 소재가 지니는 의미를 친구들과 함께 파악해 보자.

우의(寓意, Allegory)란 다른 사물에 빗대어 비유적인 뜻을 나타내거나 풍자하는 것을 말한다. 이 작품은 우의를 이용하여 ‘창고’라는 장소를 상징적인 공간으로 설정함으로써 현대 산업 사회 속에서 인간의 삶이 지닌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창고	(분업화되고 획일화된) 현대 산업 사회
상자 속 부속품	부속품으로 전락하고 만 현대인
찢긴 편지	누구도 문제를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사회의 모습
복어 대가리	자양의 모습, 훼손된 현대인의 삶(의 모습)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자양: (편지를 운전수에게 내밀며) 제발 보내야 해요!  
 운전수: 여봐, 내가 상자들을 운반하고 다니니까 상자 주인과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인데, 그건 큰 착각이야. ①난 말이야,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싣고 왔다가 그냥 실어 가는 거라구. 실제로 내가 아는 건, 정거장에서 여러 트럭들이 상자를 나눠 받을 때 만나는 분배 반장 딸기코하고, 창고에 보관했다가 다시 나눠 싣고 정거장에 가서 만나는 접수 반장 외눈깔, 그 둘뿐이라구. 딸기코와 외눈깔은 내가 붙인 별명인데, 물론 진짜 이름이야 있겠지. 하지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노름꾼이라 하듯이 나도 그들을 별명으로만 불러. 어쨌든 딸기코가 상자를 분배하는 곳은 정거장의 왼쪽이고, 외눈깔이 상자를 접수하는 곳은 정거장의 오른쪽이야. 그래서 그들은 ②같은 정거장에서 둘 다 상자를 취급하면서도 서로 얼굴 한 번 볼 수조차 없어.

(나)

자양: 그래도 상자 주인에게는 반드시 알려 줘야죠. ③영똥하게 바뀐 상자 하나 때문에 뭔가 잘못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운전수: 잘못 만들어진다니……. 그게 뭔데?  
 다량: (멀리서 듣고 있다가 큰 소리로 외친다.) 어떤 굉장한 기계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즐겁고 기쁘게 해 주는 신기한 기계죠!  
 운전수: (다량에게 외친다.) 무슨 기계라구?  
 다량: (큰 소리로) 기계가 아니라 폭탄이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여요!  
 운전수: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자양에게) 어쨌든 상자 속의 부속품으로 뭘 만드느니 알 수는 없어. 만약 폭탄을 만든다면 오히려 상자가 바뀐 것이 사람들의 목숨을 살릴 테니까 잘된 일이잖아? (자양의 편지를 허공에 들고 두 조각으로 찢으며) 여봐, 자넨 너무 배짱이 약해. ④이 조그만 창고 속에서 모든 걸 성실하게 잘했다는 것이, 창고 밖에서는 매우 큰 잘못이 된다고 생각해봐. 그럼 상자 하나쯤 틀렸다고 안절부절못하진 않을 거야. (두 조각으로 찢은 편지를 자양의 바지 양쪽 호주머니에 쑤셔 넣는다.) 무슨 일이 생겨도 창고 밖으로 알릴 필요는 없어. 그게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모를 바에야 그냥 덮어두라구. 창고 속의 ⑤자네한테는, 그게 배짱 편한 거야.  
 자양: (손에 들고 있는 서류를 가리키며) 그렇다면 이 서류들은 뭐니까? 누군가 이 서류들을 보면, 상자가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운전수: 서류가 완전하다고 믿는 건 바보들뿐이지! 좋은 예가 있어. 내 아내는 옛날에 죽었는데 사망 신고를 안 했거든. 그래서 구청에서 호적을 떼어 보면 지금도 서류상으로는 버젓하게 살아 있는 것으로 나온다구. 자, 굼벵이 양반, 꾸물대지 말고 어서 상자들이나 옮겨!

(다)

자양: 날 ⑥의붓어미라고 미워했으면서 뭘…….  
 기임: 진짜로 미워한 건 아니잖아?  
 자양: 나도 알아. (기임을 껴안는다.) 제발 가지 말아! 이 창고도, 나도, 전혀 달라진 게 없잖아?  
 기임: 그건 안 돼. 이 창고는 더 이상 내가 살 곳이 아냐.  
 운전수: 남자들끼리 헤어지면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창고 밖으로 나가며) 시간 없어! 나 먼저 트럭에 가서 있을 테니까 너희는 어서 짐 싸 들고 나와!  
 다량: (놋쇠 국자로 소리 나게 두드리며) 그만하고, 서로 자기 물건들이나 골라 봐요.  
 기임: (자아의 포옹을 풀며) 난 내 물건을 잘 모르겠어. ⑦굼벵아, 네가 골라 줘.  
 자양: 아냐, 쓸 만한 게 있거든 모두 내가 가져.  
 기임: ⑧너는 이 창고 속에서 혼자 살 텐데…….  
 자양: 내 걱정은 말고 어서 먼저 골라 봐.

(라)

다량: (자양의 침대 밑에서 상자 하나를 꺼낸다.) 이걸 뭐죠?  
 자양: 복어 대가리죠. 그건 가져가세요. 꼭 필요할 겁니다.  
 다량: 복어 대가리……?  
 기임: 이게 왜 필요한지는 두고 보면 알게 될 거야. (상자를 열어서 복어 대가리를 하나 꺼내 자양에게 준다.) 난 너한테 이것밖에 줄 게 없군. 내 생각이 날 거야. 항상 곁에 두고 보라구.  
 자양: (복어 대가리를 받으며) 그래, 언제나 내 곁에 두고 볼게.

창고 밖에서 트럭의 재촉하는 경음기가 울린다. 다량은 서둘러서 물건들을 담요에 담는다.

(마)

창고 밖으로 떠나는 것이 즐겁다는 듯이 기임의 환호성이 들린다. 트럭 운전수와 다량의 웃음소리로 들린다. 잠시 후, ⑨트럭이 경음기를 울리며 떠나는 소리가 들린다. 창고는 조용해진다. 자양, 식탁 앞에 힘없이 주저앉는다. 늙고 허약해진 모습이다. 그는 식탁 위에 놓여 있는 복어 대가리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자양: 그래, 나도 ⑩너처럼 머리만 남았군. 그저 쓸쓸하고…… 허무한 생각으로 가득 찬…… 머리만…… 덜렁…… 남은 거야. (두 손으로 복어 대가리를 집어서 얼굴 가까이 마주 바라보며) 말해 보렴, 네 눈엔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그토록 오랜 나날…… 나는 이 어둡고 조그만 창고 속에서…… 행복했었다. 상자들을 옮겨 오고…… 내보내며…… 내가 맡고 있는 일을 성실하게 잘하고 있다는 뿌듯함…… 그게 내 삶을 지탱해 왔었는데……. 그러나 만약에…… 세상이 엉뚱하게 잘못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 창고 속에서의 성실함이…… 무슨 소용 있는 거지? (사이) 복어 대가리야, 왜 말이 없냐? 멀뚱멀뚱 바라만 볼 뿐 왜 대답이 없어? (복어 대가리를

식탁 위에 내려놓는다.) 아냐, 내 의심은 틀린 거야. 덜렁 남은 머릿속의 생각만으로 세상을 잘못됐다고 판단해선 안 돼. (손수레에 실린 상자를 서류와 대조하며 혼자서 쌓기 시작한다.) 제자리에 상자들을 옮겨 놓아라! 정확하게 쌓아! 틀리면 안 돼! 단 하나의 착오도 없게,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된다.

자양, 느릿느릿 정성을 다해 상자들을 쌓는다. 무대 조명, 서서히 자양에게 압축되면서 암전한다. / -막  
-이강백, '복어 대가리'

**강일고등학교 (서울)**

**1. 위 글에 대한 이해와 수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창고'는 등장인물들이 일하는 삶의 공간으로 산업사회에서 개인에게 주어진 공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
- ② '기임'은 다림과 창고를 떠나면서 소망을 이루지만, '자양'은 한결같은 신념과 태도를 가지고 창고에 남아서 자아를 실현하고 있어.
- ③ '서류'에 대한 인식으로 볼 때 '자양'은 원칙주의자로 서류를 판단과 행위의 기준을 삼지만, '운전수'는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인물이야.
- ④ '상자'는 분업화된 현실에서 실제 사회의 본질적 모습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며, 자양이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무의미한 행동일 수 있다는 회의를 갖게 하는 소품이야.
- ⑤ '자양'과 '기임', '딸기코', '외눈깔'이라는 명명법은 현대 사회의 익명성을 상징하며, 소통이 단절된 현대인의 모습을 의미한다.

**강일고등학교 (서울)**

**2. ㉠~㉣에 대한 반응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운전수'의 해명으로 '자양'의 요구가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어.
- ② ㉡: 산업사회에서 개인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돌려 말하고 있어.
- ③ ㉢: '자양'이 정직하고 성실한 성격이라는 것과 '자양'이 편지를 반드시 전달하고자 하는 이유를 밝히는 부분이군.
- ④ ㉣: 모순된 사회 구조 속에서 개인의 맹목적인 성실함이 오히려 사회에 해악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군.
- ⑤ ㉤: 창고 안과 밖의 선명한 대비를 통해 '자양'의 외롭고 쓸쓸한 모습이 부각되었군.

**강일고등학교 (서울)**

**3. 다음 중 지시하는 대상이 다른 하나는?**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서문고등학교 (서울)**

**4. 윗글을 바탕으로 한 '복어 대가리'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한 것은?**

- ① 가치관의 혼란을 겪으며 방향성을 상실한 현대인의 모습
- ② 진정한 자아를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현대인의 모습
- ③ 쓸쓸하고 허무한 생각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현대인의 모습
- ④ 가치관의 혼란을 감수하며 이상적인 삶을 지향하는 현대인의 모습
- ⑤ 머리에 온갖 생각이 가득한 채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는 현대인의 모습

**서문고등학교 (서울)**

**5. 윗글에 나타난 '자양'의 신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이 맡은 일을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하는 것이 옳다.
- ② 어둡고 조그만 창고 속에서의 삶 자체가 행복의 근원이다.
- ③ 창고 밖의 세상은 잘못되어 있고, 성실함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 ④ 서류는 믿을 수 없으며 자신이 하는 일 자체만 진실로 믿을 수 있다.
- ⑤ 자신이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면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이므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고전여자고등학교 (경기)**

**6. 윗글의 등장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기임의 내적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 ② 운전수는 타인의 상황에 관심을 두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인다.
- ③ 자양은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편지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④ 기임은 개인의 성실함이 오히려 해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⑤ 다림은 욕심은 많지만 혼자 남겨진 자양을 걱정하는 태도를 보인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 두 명의 창고지기인 자양과 기임은 새벽마다 트럭에 실려 온 상자를 내리고 창고에 보관된 상자를 트럭에 싣는 일을 한다. 매사에 꼼꼼하게 일하는 자양과 달리 기임은 자신의 일에 회의를 느끼며 자양의 성실함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기임은 상자를 싣고 내리는 일보다 트럭 운전수의 딸인 다령과의 만남에 열중한다. 창고를 나가고 싶어 하는 기임은 다령의 부추김에 상자 하나를 바꾸어 트럭에 싣는다. 이를 뒤늦게 알아챈 자양은 잘못 나간 상자 번호를 확인하고, 상자 주인에게 잘못을 시인하는 편지를 쓴다.

창고 밖으로 상자들을 옮기고 있던 자양과 트럭 운전수 사이에 언쟁이 벌어진다. 자양은 트럭 운전수에게 ㉠편지를 전달해 주도록 간청하고 운전수는 목청을 높여 가며 거절의 이유를 설명한다.

**운전수:** 그건 미친 짓이야! 일부러 잘못했다고 편지를 보낼 필요는 없어!

**자양:** (편지를 운전수에게 내밀며) 제발 보내야 해요!

**운전수:** 여봐, 내가 상자들을 운반하고 다니니까 상자 주인과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인데, 그건 큰 착각이야. 난 말이야,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싣고 왔다가 그냥 실어 가는 거라구. 실제로 내가 아는 건, 정거장에서 여러 트럭들이 상자를 나눠 받을 때 만나는 분배반장 딸기코하고, 창고에 보관했다가 다시 나눠 싣고 정거장에 가서 만나는 접수반장 외눈깔, 그 둘뿐이러구. 딸기코와 외눈깔은 내가 붙인 별명인데, 물론 진짜 이름이야 있겠지. 하지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노름꾼이라 하듯이 나도 그들을 별명으로만 불러. 어쨌든 딸기코가 상자를 분배하는 곳은 정거장의 왼쪽이고, 외눈깔이 상자를 접수하는 곳은 정거장의 오른쪽이야. 그래서 그들은 같은 정거장에서 둘 다 상자를 취급하면서도 서로 얼굴 한번 볼 수조차 없어.

**자양:** 별명이든 이름이든 상관없어요. (편지를 억지로 운전수 손에 쥐어 준다.) 상자를 싣고 가는 곳에 내 편지를 갖다주면서,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하면 되거든요.

**운전수:** 내가 자네 편지를 외눈깔에게 주면, 외눈깔은 그다음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다음 사람은 또 다음 사람에게…… 계속해서 운반되는 상자들을 따라가 맨 나중에 주인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거지?

**자양:** 네, 바로 그겁니다.

**운전수:** 그게 또 큰 착각이러구. 부속품이 든 상자들은 말야, 중간중간에서 여러 갈래로 수없이 나눠지거든.

**자양:** 부속품 상자들은 결국 한 군데로 모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운전수:** 물론, 모아지는 곳도 있겠지. 상자들이 한 군데에서 나와 여러 군데로 흩어지느냐, 여러 군데에서 나와 한 군데로 모아지느냐……. 그건 그럴 수도 있고, 그렇

지 않을 수도 있어. 어쨌든 중간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

**자양:** 그래도 상자 주인에게는 반드시 알려 줘야죠. 엉뚱하게 바뀐 상자 하나 때문에 뭔가 잘못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운전수:** 잘못 만들어진다니……. 그게 뭔데?

**다령:** (멀리서 듣고 있다가 큰 소리로 외친다.) 어떤 굉장한 기계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즐겁고 기쁘게 해 주는 신기한 기계죠!

**운전수:** (다령에게 외친다.) 무슨 기계라구?

**다령:** (큰 소리로) 기계가 아니라 폭탄이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여요!

**운전수:**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자양에게) 어쨌든 상자 속의 부속품으로 뭘 만드는지 알 수는 없어. 만약 폭탄을 만든다면 오히려 상자가 바뀐 것이 사람들의 목숨을 살릴 테니까 잘된 일이잖아? (자양의 편지를 허공에 들고 두 조각으로 찢으며) 여봐, 자넨 너무 배짱이 약해. 이 조그만 창고 속에서 모든 걸 성실하게 잘했다는 것이, 창고 밖에서는 매우 큰 잘못이 된다고 생각해봐. 그럼 상자 하나쯤 틀렸다고 안절부절못하진 않을 거야. (두 조각으로 찢은 편지를 자양의 바지 양쪽 호주머니에 쑤셔 넣는다.) 무슨 일이 생겨도 창고 밖으로 알릴 필요는 없어. 그게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모를 바에야 그냥 덮어두라구. 창고 속의 자네한테는, 그게 배짱 편한 거야.

**자양:** (손에 들고 있는 ㉡서류를 가리키며) 그렇다면 이 서류들은 뭘니까? 누군가 이 서류들을 보면, 상자가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운전수:** 서류가 완전하다고 믿는 건 바보들뿐이지! 좋은 예가 있어. 내 아내는 옛날에 죽었는데 사망 신고를 안 했거든. 그래서 구청에서 호적을 떼어 보면 지금도 서류상으로는 버젓하게 살아 있는 것으로 나온단구. 자, 굵벙이 양반, 꾸물대지 말고 어서 상자들이나 옮겨!

<중략>

**자양:** 그래, 나도 너처럼 머리만 남았군. 그저 쓸쓸하고…… 허무한 생각으로 가득 찬…… 머리만…… 덜렁…… 남은 거야. (두 손으로 복어 대가리를 집어서 얼굴 가까이 마주 바라보며) 말해 보렴, 네 눈엔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그토록 오랜 나날…… 나는 이 어둡고 조그만 창고 속에서…… 행복했었다. 상자들을 옮겨 오고…… 내보내며…… 내가 맡고 있는 일을 성실하게 잘하고 있다는 뿌듯함…… 그게 내 삶을 지탱해 왔었는데……. 그러나 만약에…… 세상이 엉뚱하게 잘못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 창고 속에서의 성실함이…… 무슨 소용 있는 거지? (사이) 복어 대가리야, 왜 말이 없냐? 멀뚱멀뚱 바라만 볼 뿐 왜 대답이 없어? (복어 대가리를 식탁 위에 내려놓는다.) 아냐, 내 의심은 틀린 거야. 덜렁 남은 머릿속의 생각만으로 세상을 잘못됐다 구 판단해선 안 돼. (손수레에 실린 상자를 서류와 대조하며 혼자서 쌓기 시작한다.) 제자리에 상자들을 옮겨 놓아라! 정확하게 쌓아! 틀리면 안 돼! 단 하나의 착오

도 없게,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된다.

자양, 느릿느릿 정성을 다해 상자들을 쌓는다. 무대 조명, 서서히 자양에게 압축되면서 암전한다.

-이강백, '복어 대가리'

**당곡고등학교 (서울)**

**7. 위와 같은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대 상연을 전제로 쓰여진 글이다.
- ② 현재 진행형의 문장으로 표현되는 글이다.
- ③ 작가의 개성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글이다.
- ④ 주로 등장인물의 행동과 대사로 사건이 진행되는 글이다.
- ⑤ 시간적, 공간적 배경과 등장인물의 수에 제약이 있는 글이다.

**당곡고등학교 (서울)**

**8. 위와 같은 글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자양'과 '기임'은 동료이지만 성격이 서로 다른 인물로 나타난다.
- ② '창고'는 인물들의 생활 공간으로, 분업화된 산업사회에서 외부와 단절된 공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 ③ '편지'는 잘못을 시인하는 글이지만 실제로는 외부 세계와 소통하고자 하는 자양의 욕망을 암시한다.
- ④ '자양과 운전수의 대화'는 분업화와 익명성이라는 현대 산업 사회의 특징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운전수에게 한 '다령'의 대사는 현대 문명의 양면적 특성을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금촌고등학교 (경기)**

**9.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동적인 다양한 공간에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② 상징적이고 우의적인 소재들을 활용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③ 등장인물들은 같은 일에 종사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동일하다.
- ④ 등장인물 모두는 서로를 탐색하고, 자신의 편의를 위해 다른 인물들을 이용하고 있다.
- ⑤ 인물 간의 갈등을 통해 사건이 전개되며, 외적 갈등의 해소가 주제의 형상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금촌고등학교 (경기)**

**10.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운전수와 다리는 창고지기와 다르게 기계의 부속품처럼 생활하고 있다.
- ② 등장인물들은 진정한 자아를 상실한 채 모두 다 책임감만 강하게 남은 사람들이다.
- ③ 복어대가리는 생각만 가득한 무기력한 인간을 상징하며 떠나는 다령과 동일시되고 있다.
- ④ 기계와 폭탄은 획일화 되어 있는 현대 산업 사회가 개인에게 부여한 삶의 과업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 ⑤ 짐을 내리고 쌓는 단순한 행위의 반복, 등장 인물의 이름 등에서 부분적이고 폐쇄적인 현대인의 삶이 드러나고 있다.

**금촌고등학교 (경기)**

**11. 운전수의 대사를 통해 유추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운전수는 부조리한 사회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있다.
- ② 획일화되고 기계적으로 분업화된 현대 산업 사회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③ 익명적 개인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소통이 어려운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다.
- ④ 운전수는 파편화된 사회 구조 속에서 개인의 성실함은 오히려 해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⑤ 편지를 전하지 않은 운전수를 통해 부조리한 사회에 맞서지 못하는 현대인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금촌고등학교 (경기)**

**12. 윗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분석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 한꺼번에 싸게 사서 /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며 / 흥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 시우쇠처럼 나를 달구고  
모루 위에서 버리고 / 솥돌에 갈아  
시퍼런 무쇠낫으로 바꾸고 싶다  
맘 흘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 낸 / 꼬부랑 호미가 되어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 온통 부끄러워지고 / 직지사 해우소  
아늑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 어딘가 걸려 있고 싶다

- 김광규, '대장간의 유혹'

#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분석 정리

## 핵심정리 작품의 짜임

- 01 갈래 현대소설, 연작소설, 중편소설
- 02 성격 비판적, 성찰적, 상징적
- 03 주제 도시 빈민들의 궁핍한 삶과 좌절
- 04 특징
  - 주로 짧은 문장을 사용하여 인물들의 처지나 상황을 제시함.
  - ‘난쟁이, 행복동, 달나라’ 등 상징적 소재를 활용하여 주제를 강조함.

1부

[영수의 시점] 낙원구 행복동에 사는 난쟁이가 가족에게 철거 계고장이 날아옴.

2부

[영희의 시점] 땡제는 회사에서 쫓겨나고, 투기업자에게 입주권을 팔고, 집도 강제 철거당하고, 자선은 철거에 항의하며 싸우다가 끌려감.

3부

[영희의 시점] 투기업자를 따라 갔던 영희는 투기업자의 금고에서 입주권을 빼돌고 행복동으로 돌아와 입주절차를 마치나, 아버지의 죽음을 듣고는 절규함.

## 대비되는 소재 ‘난쏘공’의 상징적 소재

대비되는 소재	
가진 자	못 가진 자
개천 건너 주택가 골목	우리동네
고기 굽는 냄새	풀 냄새
주머니 달린 옷	주머니 없는 옷

난쟁이	산업화되는 도시에서 소외받고 힘에 역부러 사는 빈민 계층
낙원구 행복동	반어적 표현, 행복하지 않은 빈민촌
달나라	난쟁이가 가고 싶은 열망과 이상향의 상징 현실과 떨어져 있으며 현실을 개선할 수 없는 환상적 공간
일만 년 후의 세계	이상적 세계이나 오기 힘든 세계 (=달나라)

## ‘난쏘공’에 드러난 현대사회의 문제점

- 01 물질 만능주의 → 돈이 우선시 되는 세상
- 02 계층 재생산 → 노비의 지손들이 반근층 형성 계층 구조의 대물림
- 03 인간의 도구화 → 인간의 존엄을 외면 인간을 수단으로 취급
- 04 인간관계의 단절 → 현대 인간관계는 계약으로 형성 대가의 지불이 인간관계를 형성

##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크리틱 활동 시안

### 1 ‘철거 계고장’ 과 ‘아파트 입주권’ 을 중심으로 행복동 주민이 처한 상황을 정리해 보자.

‘철거 계고장’을 받은 주민들은 동사무소로 몰려가서 항의해 보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아파트에 입주할 능력이 되지 않는 주민들은 ‘아파트 입주권’을 거간꾼들에게 팔고 마을을 떠나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다.

### 2 ‘지섭’ 이 아버지에게 달나라로 떠나야 한다고 말한 의도를 파악해 보자.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정기가 없으며, 신의 은총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부조리한 곳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달나라와 같은 이상향을 찾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비판하기 위해 죽은 땅을 떠나 달나라로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3 이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작가가 학생들의 다음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지 짐작하여 말해 보자.

이 작품에서 아버지를 ‘난쟁이’로 설정하신 까닭은 무엇이었나요?

아버지를 ‘난쟁이처럼 왜소한 체구를 가진 약한 존재로 설정한 이유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외된 약자 계층을 상징적으로 강조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산업화·도시화로 급격한 개발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삶의 기반을 빼앗기고 쫓겨나야 했던 도시 빈민층을 ‘난쟁이’로 내세웠던 것입니다.

이 작품에서 동네 이름을 ‘낙원구 행복동’으로 설정하신 의도는 무엇이었나요?

동네 사람들은 ‘낙원’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고, 오히려 재개발을 앞둔 빈민촌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동네 이름을 반어적으로 설정하여 도시 빈민들의 피폐한 삶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한편, 그들의 절망적 현실을 강조하고자 하였습니다.

1970년대에 급속하게 진행된 산업화·도시화는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산업화와 도시화는 국가의 경제 발전을 가져왔고, 국민 소득이 향상되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를 개발하며 진행된 산업화로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공장이 있는 도시로 몰렸고, 이에 따라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었으며, 빈부 격차가 심화되었습니다. 더구나 일부 하층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에 시달리고, 적은 임금으로 힘겹게 살아가야 했으며, 시골에서 도시로 온 사람들은 주거 문제로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 재개발로 인한 철거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4** 다음 글을 참고하여 이 작품이 독자들에게 꾸준히 읽히는 까닭을 추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100쇄를 찍었던 1996년 6월, 『경향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작가는 이렇게 말했다. “계엄령과 긴급 조치의 시대였던 1970년대에 이 작품을 쓴 것은 벼랑 끝에 내몰린 우리 삶에 ‘경고 팻말’이라도 세워야겠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 한 작품이 100쇄를 돌파했다는 것은 작가에겐 큰 기쁨이지만 더 이상 이 작품이 필요하지 않은 시대가 왔으면 한다.” 그런데 300쇄까지 찍었으니 작가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은 게 분명하다. 아직도 이 작품이 필요한 시대인 것이다.

- 『경향신문』, 2017년 4월 13일 자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1970년대에 발표된 소설이지만 환상적인 기법과 미적인 문장으로 그려 낸 소외된 계층의 삶의 모습에서 독자들이 큰 감동과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꾸준히 많이 읽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문학은 창작될 당시의 시대 상황을 담아내면서 당대 사회에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또한 독자는 문학을 통해 사회 문제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기도 하고, 이는 다시 사회에 영향을 미쳐 사회 변혁을 가져오기도 한다. 그러므로 문학은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한편 역사를 만들기도 한다고 볼 수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다섯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다섯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 ㉡그러나 그 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

“통장이 이걸 가져왔어요.”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 마루 끝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게 뭐냐?”

“철거 예고장예요.”

“기어코 왔구나!”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했다. 나는 어머니의 밥상을 내려다보았다. 보리밥에 까만 된장, 그리고 시든 고추 두어 개와 졸인 감자.

나는 어머니를 위해 철거 예고장을 천천히 읽었다.

낙 원 구

주택 444, 1- 197x. 9. 10

수신: 서울특별시 ㉢낙원구 행복동 46번지의 1839

김불이 귀하

제목: 재개발 사업 구역 및 고지대 건물 철거 지시

귀하 소유 아래 표시 건물은 주택 개량 촉진에 관한 임시 조치법에 따라 행복 3구역 재개발 지구로 지정되어 서울특별시 주택 개량 재개발 사업 시행 조례 제15조, 건축법 제5조 및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x. 9. 30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명합니다. 만일 위 기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 대집행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제 철거하고 그 비용은 귀하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

철거 대상 건물 표시

서울특별시 낙원구 행복동 45번지의 1839

구조 건평 평 끝

낙 원 구 청 장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말이 없었다.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시멘트 담에 끼여지며 좁은 마당을 덮었다.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통장은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방죽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은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두 무릎을 곧추세우고 앉았다. 그리고, 손을 들어 부엌 바닥을 한 번 치고 가슴을 한 번 쳤다. 나는 동사무 소로 갔다. 행복동 주민들이 잔뜩 몰려들어 자기의 의견들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들을 사람은 두셋밖에 안 되는 데 수십 명이 거의 동시에 떠들어대고 있었다. 쓸데없는 짓이었다.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중략>

어머니는 손바닥에 놓인 표찰을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영희가 이번에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끌었다.

“너희들이 놀게 되지만 않았어도 난 별 걱정을 안 했을 거다.”

어머니가 말했다.

“스무 날 안에 무슨 뽀족한 수가 생기겠니.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지.”

“입주권을 팔려고 그래요?”

영희가 물었다.

“팔긴 왜 팔아!”

영호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럼 아파트 입주할 돈이 있어야지.”

“아파트로도 안 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그냥 사는 거야. 이건 우리 집이다.”

영호는 성큼성큼 돌계단을 올라가 아버지의 부대를 마루 밑에 놓았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이야길 하는 사람이 있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어머니가 내준 철거 예고장을 막 읽고 난 참이었다.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 놔다니가 애긴 그걸로 끝난 거다.”

“그건 우릴 위해서 지은 게 아녜요.”

영호가 말했다.

“돈도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희는 마당가 팬지꽃 앞에 서 있었다.

“우린 못 떠나. 갈 곳이 없어. 그렇지, 오빠?”

“어떤 놈이든 집을 헐러 오는 놈은 그냥 놔두지 않을 테야.”

영호가 말했다.

“그만둬.”

내가 말했다.

㉤“그들 옆엔 법이 있다.”

아버지 말대로 모든 이야기는 끝나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마당가 팬지꽃 앞에 서 있던 영희가 고개를 돌렸다. 영희는 울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영희는 잘 울었다. 그때 나는 말했다.

“울지 마. 영희야.”

“자꾸 울음이 나와.”

“그럼. 소리를 내지 말고 울어.”

“응.”

그러나, 풀밭에서 영희는 소리를 내어 울었다. 나는 손으로 영희의 입을 막았다. 영희의 몸에서는 풀 냄새가 났다. 개천 건너 주택가 골목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났다. 나는 그것이 고기 굽는 냄새인 줄 알면서도 어머니에게 묻고는 했다.

“엄마, 이게 무슨 냄새야?”

어머니는 말없이 걸었다. 나는 다시 물었다.

“엄마, 이게 무슨 냄새지?”

어머니는 나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걸음을 빨리하면서 말했다.

“고기 굽는 냄새란다. 우리도 나중에 해 먹자.”  
 “나중에 언제?”  
 “자. 빨리 가자.”  
 어머니는 말했다.  
 “너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고기도 날마다 먹을 수 있단다.”  
 “거짓말!”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면서 내가 말했다.  
 “아버지는 나쁜 사람야.”  
 어머니가 우뚝 섰다.  
 “너 방금 뭐라고 했니?”  
 “우리 아버지는 나쁜 사람야.”  
 “너 매 좀 맞아야겠구나.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나도 주머니가 달린 옷을 입고 싶어.”  
 “빨리 가자.”  
 “엄마는 왜 우리들 옷에 주머니를 안 달아 주지? 돈도 넣어 주지 못하고, 먹을 것도 넣어 줄게 없어서 그렇지?”  
 “아버지에 대해 말을 막 하면 너 매 맞을 줄 알아라.”  
 “아버지는 악당도 못 돼. 악당은 돈이나 많지.”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알아.”  
 나는 말했다.  
 “수백 번도 더 들었어. 그렇지만 이제 속지 않아.”  
 “엄마, 큰오빠는 말을 안 들어.”  
 영희는 부엌문 앞에 서서 말했다.  
 “엄마 몰래 또 고기 냄새 맡으러 갔었대. 나는 안 갔어.”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영희를 흘겨보았다. 영희는 또 말했다.  
 “엄마. 큰오빠가 고기 냄새 맡으러 갔었다고 말했더니 때리려고 그래.”  
 영희는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나는 영희의 입에서 손을 떼었다. 영희를 풀밭으로 끌고 들어간 것이 잘못이었다. 영희를 때려 주고 나는 후회했다. 귀여운 영희의 얼굴은 눈물로 젖었다. 우리는 그때 주머니 없는 옷을 입고 있었다.

<뒷부분 줄거리> 행복동 주민들 대부분은 투기업자에게 입주권을 팔고 동네를 떠난다. 아파트에 입주할 능력이 안 되는 ‘나’의 가족들 역시 다른 이웃들처럼 입주권을 팔지만, 전세금을 빼 주느라 명희네에게 빌린 돈을 갚고 나니 남는 것이 거의 없다. 그런데 이사 가기 전날 아버지와 영희는 사라지고, 이후 영희는 자기네 집 입주권을 산 남자를 따라갔다가 그 남자의 집에서 돈과 입주권을 훔쳐 도망쳐 나온다. 혼자 동사무소에 가서 입주 신청을 한 영희는 예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오지만, 가족들은 이미 다른 데로 이사를 가 버린 뒤다. 영희는 동네 아주머니로부터 아버지가 그동안 일하던 벽돌 공장 굴뚝에 올라갔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다.

- 조세희,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대륜고등학교 (대구)**

1. 윗글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 육체적 장애를 넘어 사회적 결핍을 의미하는 사회적

약자인 ‘난쟁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동정과 연민이 드러난다.

- ㉡ ㉡ : ‘그날 아침 일’에 대한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여 독자로 하여금 뒤에 제시될 사건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
- ㉢ ㉢ : 동네의 명칭과 실제 난쟁이 가족의 삶의 괴리를 통해 비참한 현실을 강조하는 반어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 ㉣ : 난쟁이 가족의 암담한 미래를 암시하고,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산업화의 횡포를 의미한다.
- ㉤ ㉤ : 법이 약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현실이 부조리함과 냉혹함을 드러내고 있다.

**대륜고등학교 (대구)**

2.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소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작가가 치밀하게 계산하여 설정해 놓은 각 구성 단계를 거치며 전개되는 매우 섬세하고 극적인 재미를 지닌 이야기이다. 바로 이 소설의 구성 단계를 이루는 가장 큰 요소가 갈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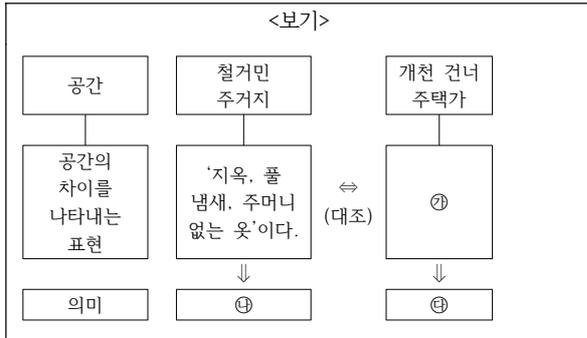
갈등은 인물의 내면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적갈등의 인물과 인물 외적 대상과의 갈등인 외적갈등으로 나눌 수 있다. 외적 갈등에는 인물과 인물의 갈등,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 인물과 자연과의 갈등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사건이 진행되는 가운데 갈등을 일으키는 소재나 상황이 제시되고 갈등의 과정에서 인물들이 보여주는 행동이나 심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이 나타난다. 또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러 사건 해결의 열쇠가 제시되고 갈등과 위기가 해소되면서 주인공의 운명이 결정된다. 또한 사건이 마무리되는 일련의 극적 구성 단계를 거치며 소설의 이야기가 완성되고 이 과정에서 소설의 주제가 드러난다.

- ㉠ 윗글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중심 소재로 제시된 것은 ‘철거 계고장’이 되겠군.
- ㉡ 윗글의 주된 갈등 양상은 외적 갈등 중 인물과 사회의 갈등으로 볼 수 있군.
- ㉢ ‘영호’는 갈등 상황 속에서 현실에 체념하는 ‘어머니’, ‘아버지’와 달리 적극적으로 대항한다는 점에서 저항적인 성격을 가졌음을 알 수 있군.
- ㉣ ‘영희’를 때리고 ‘나’가 후회하는 장면은 갈등이 최고조에 치달는 장면으로 이후 ‘나’는 ‘나’의 잘못을 반성하게 되면서 갈등과 위기가 해소되는군.
- ㉤ ‘난쟁이’의 죽음은 갈등 상황 속에서 인물이 패배했음을 나타내고 이는 도시 빈민의 궁핍한 삶과 좌절이라는 주제로 이어지고 있군.

대륜고등학교 (대구)

3. 윗글을 읽고 윗글에서 구분한 공간의 차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과 그 의미를 <보기>와 같이 정리하려고 한다. 다음의 <조건>에 따라 서술하시오.



- <조건>
- (1) ㉠에 들어갈 표현 3가지를 완성된 문장으로 모두 서술할 것.
  - (2) ㉡에 '철거민 주거지'가 의미하는 바를 완성된 문장으로 서술할 것.
  - (3) ㉢에 '개천 건너 주택가'가 의미하는 바를 완성된 문장으로 서술할 것.

대륜고등학교 (대구)

4. 윗글을 <보기>의 ㉠~㉢의 관점에서 수용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공감적 수용	㉠ 특정 상황에 놓인 작품 속 등장인물의 태도나 생각, 행동 등에 대해 이해함. ㉡ 작품 속에 나타난 작가의 관점이나 가치관 등에 대해 동의하거나 공감함.
비판적 수용	㉢ 작가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작품의 내용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수용함. ㉣ 작품의 내용뿐 아니라 작품의 형식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비판하며 수용함.
창의적 수용	㉤ 자신의 개성 있는 안목에 따라 작품의 내용을 창의적으로 수용함.

㉠ ㉠ : '전쟁'으로 자신들의 삶을 표현한 '나'의 처지가 매우 안타깝게 다가왔어. 얼마나 힘들면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라고 표현했겠어.

- ㉡ ㉡ : "그건 우릴 위해서 지은 게 아녜요."라고 외친 부분에서 약자를 위한 정책이 사실 돈 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작가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고 이는 그 시대를 예리하게 관찰한 결과라 할 수 있군.
- ㉢ ㉢ : 어머니가 아버지를 두둔하며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라고 말했지만 무능력한 아버지는 '나'에게 있어서는 좋지 않은 가장임에는 틀림없다고 봐.
- ㉣ ㉣ : 외부이야기에서 내부이야기로 들어가는 액자식 구성보다는 난쟁이의 죽음을 먼저 제시하여 독자의 흥미를 끌고 이후 내막을 이야기하는 역순행적 구성을 쓰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 ㉤ ㉤ : 윗글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이 연대하여 입주권을 팔지 않고 값을 올리거나 세력을 형성하여 조직적으로 대항했다면 상황이 보다 좋아지지 않았을까?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어머니-영호-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다섯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다섯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 그러나 그 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

"통장이 이걸 가져왔어요."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 마루 끝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게 뭐냐?"

"철거 계고장예요."

"기어코 왔구나!"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했다. 나는 어머니의 밥상을 내려다보았다. 보리밥에 까만 된장, 그리고 시든 고추 두어 개와 졸인 감자.

나는 어머니를 위해 철거 계고장을 천천히 읽었다.

<중략>

어머니는 조각 마루 끝에 앉아 말이 없었다.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시멘트 담에 꺾어지며 좁은 마당을 덮었다. 동네 사람들이 굴목으로 나와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통장은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방죽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은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두 무릎을 곧추세우고 앉았다. ㉞그리고, 손을 들어 부엌 바닥을 한 번 치고 가슴을 한 번 쳤다. 나는 동사무소로 갔다. 행복동 주민들이 잔뜩 몰려들어 자기의 의견들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들을 사람은 두셋밖에 안 되는데 수십 명이 거의 동시에 떠들어 대고 있었다. ㉟쓸데없는 짓이었다.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나는 바깥 게시판에 적혀 있는 광고문을 읽었다. 거기에는 아파트 입주 절차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경우 탈 수 있는 이주 보조금 액수 등이 적혀 있었다. 동사무소 주위는 시장 바닥과 같았다. 주민들과 아파트 거간꾼들이 한데 뒤엉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했다. 나는 거기서 아버지와 두 동생을 만났다. ㊱아버지는 도장포 앞에 앉아 있었다. 영호는 내가 방금 물러선 게시판 앞으로 갔다. 영희는 골목 입구에 세워 놓은 검정색 승용차 옆에 서 있었다. 아침 일찍 일들을 찾아 나섰다가 철거 계고장이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온 것이었다. 누군들 이런 날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버지 옆으로 가 아버지의 공구들이 들어 있는 부대를 둘러메었다. 영호가 다가오더니 나의 어깨에서 그 부대를 내려 옮겨 메었다.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을 넘겨주면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영희를 보았다. 영희의 얼굴은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몇 사람의 거간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아파트 입주권을 팔라고 했다. 아버지가 책을 읽고 있었다. 우리는 아버지가 책을 읽는 것을 처음 보았다. 표지를 찢기 때문에 무슨 책을 읽는지도 알 수 없었다. 영희가 허리를 굽혀 아버지의 손을 잡아끌었다. 아버지는 우리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난쟁이가 간다.”라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말했다.

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붙어 있는 알루미늄 표찰을 떼기 위해 식칼로 못을 뽑고 있었다. 내가 식칼을 받아 반대쪽 못을 뽑았다. ㊲영호는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 주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어머니는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찰을 빨리 떼어 간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손바닥에 놓인 표찰을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영희가 이번에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끌었다.

“너희들이 놀게 되지만 않았어도 난 별걱정을 안 했을 거다.”

어머니가 말했다.

“스무 날 안에 무슨 뽕족한 수가 생기겠니.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지.”

“입주권을 팔려고 그래요?”

영희가 물었다.

“팔긴 왜 팔아!”

영호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럼 아파트 입주할 돈이 있어야지.”

“아파트로도 안 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그냥 사는 거야. 이젠 우리 집이다.”

영호는 성큼성큼 돌계단을 올라가 아버지의 부대를 마루 밑에 놓았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이야기 할 사람이 있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어머니가 내준 철거 계고장을 막 읽고 난 참이었다.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 놔다니까 애긴 그걸로 끝난 거다.”

“그건 우릴 위해서 지은 게 아녜요.”

영호가 말했다.

“돈도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희는 마당가 팬지꽃 앞에 서 있었다.

“우린 못 떠나. 갈 곳이 없어. 그렇지, 큰오빠?”

“어떤 놈이든 집을 헐러 오는 놈은 그냥 놔두지 않을 테야.”

영호가 말했다. / “그만둬.”

내가 말했다.

“그들 옆엔 법이 있다.”

아버지 말대로 모든 이야기는 끝나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마당가 팬지꽃 앞에 서 있던 영희가 고개를 돌렸다. ㊳영희는 울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영희는 잘 울었다. 그때 나는 말했다.

“울지 마. 영희야.”

“자꾸 울음이 나와.”

“그럼. 소리를 내지 말고 울어.” / “응.”

그러나, 풀밭에서 영희는 소리를 내어 울었다. 나는 손으로 영희의 입을 막았다. 영희의 몸에서는 풀 냄새가 났다. 개천 건너 주책가 골목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났다. 나는 그것이 고기 굽는 냄새인 줄 알면서도 어머니에게 묻고는 했다.

“엄마, 이게 무슨 냄새야?”

어머니는 말없이 걸었다. 나는 다시 물었다.

“엄마, 이게 무슨 냄새지?”

어머니는 나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걸음을 빨리하면서 말했다.

“고기 굽는 냄새란다. 우리도 나중에 해 먹자.”

“나중에 언제?”

“자. 빨리 가자.” <중략>

아버지는 철거 계고장을 마루 끝에 놓고 책을 읽었다. 우리는 아버지에게서 무엇을 바라지는 않았다. 아버지는 그 동안 충분히 일했다. 고생도 충분히 했다. 아버지만 고생을 한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 - 또 - 대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들은 아버지보다 더 심한 고생을 했을 수도 있다. 나는 공장에서 이상한 매매 문서가 든 원고를 조판한 적이 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짜기 위해 나는 열심히 손을 놀렸다. ‘婢 金伊德의 한 소생 奴 今同 庚寅生, 奴 今同의 양처 소생 奴 金今伊 丁卯生, 奴 今同의 양처 소생 奴 德水 己巳生, 奴 今同의 양처 소생 奴 存世 辛未生, 奴 今同의 양처 소생 奴 永石 癸酉生, 奴 金今伊의 양처 소생 奴 鐵壽 丙戌生, 奴 金今伊의 양처 소생 奴 今山 戊子生.’

나는 그때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 판을 짜고 다음 판을 짜 나가다 겨우 알았다. 노비 매매 문서의 한 부분이었다. 나는 열흘 동안 같은 책을 조판했다. 그 열흘 동안 나는 아버지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하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의 어머니, 어머니의 할머니, 할머니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할머니들이 최하층 천인으로서 무슨 일을 해 왔는지 알고 있었다. 어머니라고 달라진 것은 없었다. 마음 편할 날 없고, 몸으로 치려야 하는 노역은 같았다. 우리의 조상은 세습하여 신역을 바쳤다. 우리의 조상은 상속·매매·기증·공출의 대상이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나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엄마를 잘못 들어 두어 이 고생이다. 아버지하고는 상관이 없단다.”

어머니는 장남인 나에게만 말했다. 외할머니에게 들은 말을 나에게 전한 것이다. 천년을 두고 우리의 조상은 자손들에게 이 말을 남겼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도 씨종의 자식이었다.

할아버지의 아버지 대에 노비제는 사라졌다. 증조부 내외분은 아무것도 몰랐다. 나중에서야 해방을 맞았다는 것을 알았으나 두 분이 한 말은 오히려 “저희들을 내쫓지 마십시오.”였다. 할아버

지는 달랐다. 할아버지는 유습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늙은 주인은 할아버지에게 집과 땅을 주었다. 그러나 쓸데없는 일이었다. 모르는 면에서는 할아버지나 증조부나 같았다. 증조부대까지는 선조들이 살아온 경험이 도움이 되었으나 할아버지 대에는 그것이 도움을 주지 못했다. 할아버지에게는 어떤 교육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다. 할아버지는 집과 땅을 잃었다.

“할아버지도 난쟁이었어?”

언젠가 영호가 물었다.

나는 영호의 머리를 쥐어박았다.

좀 큰 영호는 말했다.

“왜 지난 일처럼 쉬쉬하는 거야? 변한 것이 없는데 우습지도 않아?”

나는 가만있었다.

- 조세희,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주례여자고등학교 (부산)

5.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시점을 달리하여 사건을 다각도로 바라보고 있다.
- ㉡ 인물의 행위를 과장되게 서술하여 사건을 희화화하고 있다.
- ㉢ 대화 장면을 삽입하여 인물의 내적 갈등을 표면화하고 있다.
- ㉣ 서술자가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주관적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 ㉤ 시간의 역전을 통해 인물의 과거 모습을 비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례여자고등학교 (부산)

6. ㉠ ~ ㉤을 통해 인물들의 심리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 집이 철거된 상황에 놓인 '어머니'가 느끼는 절망감과 답답한 심정이 드러나 있다.
- ㉡ ㉡ :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없다는 '나'의 무력감이 나타나 있다.
- ㉢ ㉢ : 철거를 전후하여 '아버지'의 생각과 심경에 변화가 생겼음을 추측할 수 있다.
- ㉣ ㉣ : 부조리한 현실(철거)에 대한 '영호'의 불만이 암시되어 있다.
- ㉤ ㉤ : 순수하고 어린 '영희'의 성향을 짐작할 수 있다.

주례여자고등학교 (부산)

7.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작품은 1970년대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전되던 과정에서 소외된 도시 빈민의 궁핍한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당시 경제 발전과 인구 유입 등으로 도시가 확장되면서 중심부와 주변부로 재편되었고, 하층민들은 주변부로 몰리게 되었으며, 끝내 그들의 거주 공간조차 재개발의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다. 집이 주거 본래의 가치보다 투기의 대상으로 간주되면서 도시 주변의 빈민들은 인간적인 삶에서 소외되었다. 작가는 가난한 삶이나마 지켜 내고자 노력하는 '난쟁이' 가족의 모습을 통해 빈민의 비극적인 현실을 드러내고 있으며,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통해 당대의 불평등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다.

- ㉠ '고기 굽는 냄새'와 '풀 냄새'는 각각 도시의 중심부와 주변부의 삶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군.
- ㉡ 인물을 신체적 결함을 지닌 '난쟁이'로 설정함으로써 소외된 도시 빈민의 경제적 빈곤을 시각적으로 드러내었군.
- ㉢ '거간꾼들'이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는 모습은 집이 본래의 가치를 상실하고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군.
- ㉣ 조상 대대로 힘겹게 살아도 나아진 것이 없는 난쟁이 가족의 내력을 통해 빈곤이 세습되는 불평등한 현실을 폭로하고 있군.
- ㉤ '알루미늄 표찰'을 '말없이 들여다보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가난한 삶이나마 지켜 내고자 적극적으로 애쓰는 인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주례여자고등학교 (부산)

8. 윗글에서 난쟁이 가족의 삶을 비유한 단어 두 가지를 찾아 제시하고, 이와 비교하여 행복동이라는 동네 명칭이 주는 효과를 서술하시오.

<조건>

- 난쟁이 가족의 삶을 비유한 단어 두 가지를 정확히 쓰고, 동네 명칭이 주는 효과를 서술할 것.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울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어머니·영호·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다섯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다섯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 그러나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

“통장이 이걸 가져왔어요.”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아침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게 뭐냐?” / “㉡철거 계고장예요.” / “기어코 왔구나!” /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했다. 나는 어머니의 밥상을 내려다보았다. 보리밥에 까만 된장, 그리고 시든 고추 두어 개와 졸인 감자.

나는 어머니를 위해 철거 계고장을 천천히 읽었다.

낙 원 구

주택 444, 1- 197x. 9. 10

수신: 서울특별시 ㉢낙원구 행복동 46번지의 1839 김불이 귀하

제목: 재개발 사업 구역 및 고지대 건물 철거 지시

귀하 소유 아래 표시 건물은 주택 개량 촉진에 관한 임시 조치법에 따라 행복 3구역 재개발 지구로 지정되어 서울특별시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 시행 조례 제15조, 건축법 제5조 및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x. 9. 30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명합니다. 만일 위의 기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제 철거하고 그 비용은 귀하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

철거 대상 건물 표시  
서울특별시 낙원구 행복동 46번지의 1839 구조 건평 평 끝.  
낙 원 구 청 장

어머니는 조각 마루 끝에 앉아 말이 없었다.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시멘트 담에 꺾어지며 좁은 마당을 덮었다.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통장은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방죽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은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두 무릎을 곧추세우고 앉았다. 그리고, 손을 들어 부엌 바닥을 한 번 치고 가슴을 한 번 쳤다. 나는 동사무소로 갔다. 행복동 주민들이 잔뜩 몰려들어 자기의 의견들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들을 사람은 두셋밖에 안 되는데 수십 명이 거의 동시에 떠들어대고 있었다. 쓸데없는 짓이었

다.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중략>

그러나, 풀밭에서 영희는 소리를 내어 울었다. 나는 손으로 영희의 입을 막았다. 영희의 몸에서는 풀 냄새가 났다. ㉣개천 건너 주택가 골목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났다. 나는 그것이 고기 굽는 냄새인 줄 알면서도 어머니에게 묻고는 했다.

“엄마, 이게 무슨 냄새야?”

어머니는 말없이 걸었다. 나는 다시 물었다.

“엄마, 이게 무슨 냄새지?”

어머니는 나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걸음을 빨리하면서 말했다.

“고기 굽는 냄새란다. 우리도 나중에 해 먹자.”

“나중에 언제?” / “자. 빨리 가자.” / 어머니는 말했다.

“너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고기도 날마다 먹을 수 있단다.”

“거짓말!”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면서 내가 말했다.

“아버지는 나쁜 사람야.” / 어머니가 우뚝 섰다.

“너 방금 뭐라고 했니?” / “우리 아버지는 나쁜 사람야.”

“너 매 좀 맞아야겠구나.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나도 주머니가 달린 옷을 입고 싶어.” / “빨리 가자.”

“엄마는 왜 우리들 옷에 주머니를 안 달아 주지? 돈도 넣어 주지 못하고, 먹을 것도 넣어 줄게 없어서 그렇지?”

“아버지에 대해 말을 막 하면 너 매 맞을 줄 알아라.”

“아버지는 악당도 못 돼. 악당은 돈이나 많지.”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 “알아.” / 나는 말했다.

“수백 번도 더 들었어, 그렇지만 이제 속지 않아.”

“엄마, 큰오빠는 말을 안 들어.”

영희는 부엌문 앞에 서서 말했다.

“엄마 몰래 또 고기 냄새 맡으러 갔었대. 나는 안 갔어.”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영희를 흘겨보았다. 영희는 또 말했다.

“엄마. 큰오빠가 고기 냄새 맡으러 갔었다고 말했더니 때리려고 그래.”

영희는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나는 영희의 입에서 손을 떼었다. 영희를 풀밭으로 끌고 들어간 것이 잘못이었다. 영희를 때려 주고 나는 후회했다. 귀여운 영희의 얼굴은 눈물로 젖었다. ㉤우리는 그때 주머니 없는 옷을 입고 있었다.

- 조세희,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인항고등학교 (인천)**

**9.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 짧고 간결한 문장을 통해 경쾌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Ⅲ.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 ㉓ 1인칭 서술자를 통해 사건의 진행과정과 인물의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 ㉔ 이질적인 두 개의 시선을 대비하여 사회현실을 총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 ㉕ 다른 사람의 체험을 듣고 독자에게 전해주는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
- ㉖ 과거의 사건과 현재 상황을 대비하여 인물의 갈등 양상을 해소하고 있다.

인항고등학교 (인천)

10. <보기1>의 내용을 참고로 할 때, <보기2>의 ㉓ ~ ㉕ 중 ㉔와 표현상의 특징이 가장 유사한 것은?

<보기1>

㉔ 낙원구 행복동은 실제 지명이 아니다. 낙원, 행복이라는 이 가상의 동네 명칭은 난쟁이 가족 실제 삶의 괴를 통해 비참한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

<보기2>

나는 이 겨울을 누워 지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  
 ㉓ 염주처럼 윤나게 굴리던  
 독백도 끝이 나고 / 바람도 불지 않아  
 ㉔ 이 겨울 누워서 편히 지냈다.

저 들에선 ㉕ 벌거벗은 나무들이  
 추워 울어도  
 ㉓ 서로 서로 기대어 숲이 되어도  
 나는 무관해서 / 문 한번 열지 않고  
 ㉕ 반추 동물처럼 죽음만 꺼내 씹었다.  
 나는 누워서 편히 지냈다.

- 문정희, '겨울일기'

- ㉓ ㉔
- ㉔ ㉕
- ㉕ ㉓
- ㉓ ㉕
- ㉔ ㉓

인항고등학교 (인천)

11. <보기>를 고려할 때 ㉓ ~ 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보기>

1970년대가 시작되면서 반공과 경제 성장 양쪽에 위기가 닥치기 시작했죠. 긍정적 목적으로 시작된 산업화는 나라 전체로 보아서는 믿을 수 없는 경제 성장의 효과를 이뤄냈지만 큰 오류에 빠졌어요. 그 부가 소수의 가진 자들에게 편중되어 다수의 가지지 못한 서민들은 가난에서 크게 헤어 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부의 편재로 인해 이전보다 더한 상대적 빈곤이 두드러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발 정책은 공업화의 성격을 띠게 되었고 투자가 공업 쪽에 편중되었기에 1차 산업 부문, 특히 농업 부문은 국가 기반 정책에서 외면당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1960년대 전체인구의 60% 정도이던 농림수산업 인구가 1970년대에 40% 정도로 크게 떨어졌고 그 대신 공업인구는 8% 선에서 14% 선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도시로 나온 농여촌 출신의 인력 대부분은 노동자가 되거나 저임금 공장 노동자가 되어야만 했죠. 흔히 '경제발작' 시대라고 불린 이때에 외형적 성장이 급했던 정부는 대외 경쟁력을 이유로 말이죠. 근로자들의 임금인상과 복지 향상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상당수의 기업주들마저 이에 편승하여 부를 축적하는 데만 급급해 했죠. 그렇기에 당연히 근로자들에게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작업 환경을 강요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영원히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고 가난은 끝없이 대물림 될 수밖에 없습니니다.

- ㉓ ㉔ : 난쟁이라는 육체적 장애를 가진 아버지는 경제적 빈곤, 무력감을 지닌 사회적 약자를 상징한다.
- ㉔ ㉕ : 철거 계고장은 갈등을 일으키는 소재로 난쟁이 가족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 ㉓ ㉕ : 벽돌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좁은 마당을 덮은 것은 산업화의 횡포로 인한 사회적 약자들의 저항을 상징한다.
- ㉓ ㉔ : 주택가 골목의 고기 굽는 냄새는 영희의 풀냄새와 대비되는 소재로 자본과 권력이 있는 이들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㉓ ㉕ : 주머니 없는 옷은 주머니가 달린 옷과 대비되는 소재로 가난하고 궁핍한 도시빈민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pt005pt (카톡 ID)  
 내용 질문, 오류 신고

III 이생규장전

1.⑤ 2.죽은 '최 씨'가 등장하여 이승의 '이생'과 만나 는 비현실적 사건을 통해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을 드러낸다. 3.④ 4.① 5.④ 6.⑤ 7.①② ③ 8.② 9. (1) 인물과 사회 (2) 인물과 사회 (3) 인물 과 운명 (4) 죽음을 초월한 남녀간의 애절한 사랑이 라는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10. (1) 옥이 부서 지고 꽃도 흩날리네 (2) 흥건적의 침입 때문에 최 씨 가 죽게 되었다. (3) 인물의 심리를 비유적, 함축적으 로 제시하고 있다. 11.④ 12.④ 13.④ 14.④ 15.② 16. ④ 17.③ 18.① 19.④ 20.(1) ㉠ 최 씨 ㉡ 두 번의 이 별 (2) 이생과 최 씨의 이별을 암시한다. 21.인물의 심리를 비유적으로 표현한다.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 한다. 22.② 23.② 24.③ 25.③ 26.④ 27.③ 28.④ 29. ④ 30.② 31.② 32.③ 33.죽은 최 씨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이다. 34.④ 35.③ 36.② 37. 이생과 최씨는 만남 과 이별을 반복하는 사랑으로 작품의 비극성을 높이 고 있다. 38.(1) 흥건적의 난 (2) 창과 방패가 눈에 가득한 싸움터 39.옛 성현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이 살 아 계실 때는 예로써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는 예로 써 장사 지내야 한다.'라고 했는데 당신의 천성이 효 성스럽고 인정이 두터웠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다 처 리할 수 있었던 것이오. 40.①⑤ 41.③ 42.① 43.④ 44.④ 45.⑤ 46.② 47.③ 48.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성 격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인물의 능동적인 성격은 봉 건적 사고와 세계의 횡포에 대한 저항을 효과적으로 그려 사랑과 자유로운 인간의 삶에 대한 지향을 드 러내고 있다. 49.① 50.⑤ 51.③ 52.죽은 최씨가 환생 하여 이생과 인연을 이어가는 시절 53.③ 54.④ 55. ②

III 엄마의 말뚝 2

1.④ 2.④ 3.③ 4.③ 5.③ 6.④ 7.② 8.③ 9.② 10.①⑤ 11.⑤ 12.③ 13.③ 14.④ 15.④ 16. ㉠저승사자, ㉡군 관, ㉢아들 17.③ 18.⑤ 19.② 20.⑤ 21.④ 22.④ 23. ① 24.홀로 두 자녀를 억척스럽게 키워 낸 어머니의 의지 25.④ 26.② 27.㉠: 남북 분단에 따른 비극을 극 복하려는 의지 ㉡: 분단의 비극을 정면으로 맞서려는 의지 28.과거의 아들이 어머니 자신의 눈앞에서 죽게 되었고 그 일을 현재 환각으로 겪게 됨. 29.⑤ 30.③ 31.④ 32.1) 홀로 두 자녀를 억척스럽게 키워 낸 어 머니의 의지 2) 고향을 떠나 서울에 와서 정착한 삶 의 터전 33.④ 34.② 35.분단이 극복되지 않은 한 어

머니의 정신적 상처가 치유되지 않을 것임. 36.② 37. ③ 38.③ 39.1) 홀로 두 자녀를 억척스럽게 키워 낸 어머니의 의지 2) 고향을 떠나 서울에 와서 정착한 삶의 터전

III 이옥설

1.③ 2.① 3.⑤ 4.④ 5.① 6.③ 7.① 8.(1)비가 새어 집 이 퇴락해가는 상황은 정치가 혼란스러워지고 나라 가 어려워지는 것을 비유한다. (2)비가 새는 집을 그 대로 두는 것은 무인정권이 싫어서 몸을 낮추고 정 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비가 새는 집 을 그대로 두면 나중에 고치는데 비용이 더욱 많이 든다고 하였으므로, 나라에 위기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발견하면 즉시 바로잡아야지 그러지 않으면 후에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뒤늦게 고치려 든 다면 나라의 인재는 이미 잃은 후이고, 백성들의 부담과 고통도 더욱 커질 것이다. 9.② 10.① 11. 잘못 이 있다면 그 즉시 고쳐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나중 에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12.④ 13.③ 14.① 15. ⑤ 16.① 17.③ 18.① 19.⑤ 20.④ 21.⑤ 22.④ 23.① ⑤ 24.지은이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결국 '나라의 정사'를 바로잡는 것이다. 25.④ 26.② 27.③ 28.④ 29.⑤ 30.③

III 북어 대가리

1.② 2.① 3.⑤ 4.① 5.① 6.② 7.③ 8.③ 9.② 10.⑤ 11.⑤ 12.⑤ 13.① 14.② 15.기계 부품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문제 삼음. 16.③ 17.③ 18.⑤ 19.의붓어미, [의붓어미] 20.② 21.⑤ 22.③ 23.두 작품 모두 산업 사회에서 진정한 자아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현대인 의 모습을 문제 삼고 있다. / '보기'는 화자의 내적 독백을 통해 주제를 전달하는 반면, 이 희곡은 등장 인물 간의 갈등 속에 전개되는 사건과, 해설, 지문, 대사 등의 요소를 활용하여 주제를 전달한다. 24.① 25.① 26.② 27.③ 28.⑤ 29.⑤ 30.④ 31.② 32.자양: 판단과 행위의 기준, 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 다는 믿음을 보여 줌. / 운전수: 신뢰할 수 없는 대 상, 사회의 거대한 부조리함에 대해 불신을 드러냄. 33.⑤ 34.③ 35.④ 36.운전수는 분배반장을 딸기코로 부르고, 접수 반장은 외눈깔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둘은 운전수를 노름꾼이라 부른다. 이를 통해 익 명성을 갖고 진정한 소통은 하지 못하는 현대사회의 문제를 비판함. 37.③ 38.④ 39.북어 대가리 40.④ 41.

④ 42.①

**Ⅲ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1.① 2.④ 3.㉠ '천국, 고기 굽는 냄새, 주머니가 달린 옷'이다. ㉡ 철거민 주거지는 도시 빈민들의 소외되고 가난한 삶을 의미한다. ㉢ 개천 건너 주택가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의미한다. 4.④ 5. ④ 6.③ 7.⑤ 8.난쟁이 가족의 가난한 삶을 비유한 단어는 지옥, 전쟁이며, 행복동이라는 동네 명칭과 고통스러운 실제 삶의 괴리를 난쟁이 가족의 가난하고 비참한 현실을 강조한다. 9.② 10.② 11.③ 12.⑤ 13. ② 14.⑤ 15.④ 16.② 17.② 18.② 19.① 20.④ 21.⑤ 22.③ 23.④ 24.② 25.④ 26.⑤ 27.② 28.① 29.⑤ 30. ⑤ 31.④ 32.⑤ 33.⑤ 34.④ 35.③ 36.④ 37.② 38.⑤ 39.지옥

**Ⅲ 제망매가, 동곡칠가 4**

1.④ 2.③④ 3.② 4.[A]는 누이의 죽음에서 두려움과 애처로움을 느끼고, [B]는 누이의 죽음에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낀다. 3단 구성으로 이루어지며, 마지막 부분에 감탄사가 나타난다. 화자의 정서를 집약해 시상을 정리하고, 작품의 전체적인 마무리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 5.① 6.도라지꽃, 돌무덤 7.② 8.③9.(1) 슬픔 (2) 가는 곳 모르온저 10.③ 11.④ 12.④ 13.⑤ 14. 이에 더해 부르딜 님 15.③ 16.1) ㉠: 죽은 누이, ㉡: 화자 자신 2) 흐든 가지라 나고 17.③ 18.① 19.④ 20.① 21.① 22.⑤ 23.③ 24.의인화 - 감정 이입을 통해 화자의 슬픔을 간접적으로 표현함 25.1) 흐든 가지라 나고 2) 죽림의 원숭이도 맑은 대낮에 우네 26.회수 파도 드높고 교룡은 성내니, 배로 가려 해도 화살이 눈앞에 날고, 남국에까지 군대 깃발 펄렁이누나 27.② 28.④ 29.② 30.④

**IV 별 헤는 밤**

1.① 2.④ 3.① 4.별레: 부끄러움에 대한 슬픔으로 반성적 태도가 드러남. / 제비: 귀향살이의 시름이 나타남. 5.1) ㉠: 8~9연, ㉡: 10연 2) ㉢: 별레 6.⑤ 7.④ 8. ⑤ 9.~머뭇거리던 입가, ~고개 숙인: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 10.① 11.⑤ 12.① 13.⑤ 14.③ 15.⑤ 16.별 17.② 18.⑤ 19.⑤ 20.② 21.③ 22.④ 23.아름다움, 순수, 이상 24. 별레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으로 무기력한 자아에 대한 반성을 나타냄. 25.⑤ 26.② 27.⑤ 28.'과거(그리움) - 현재(반성) - 미래(희망)' 29.

③ 30.④ 31.① 32.① 33.②

**IV 일동**

1.② 2.④ 3.④ 4.③ 5.② 6.가족의 행복이 처참히 망가졌음을 의미. 7.공감과 배려 없는 세상 사람들의 태도. 8.③ 9.⑤ 10.③ 11.③ 12.② 13.이웃들의 지나친 관심과 공감이 부재한 애도가 오히려 폭력으로 변하여 부부에게 또 다른 아픔을 주었음을 표현함. 14.② 15.③ 16.③ 17.④ 18. '입동': 타인의 몰이해와 차가운 시선 속에서 아픔을 안은 채 살아가야 할 부부의 시간을 상징한다. '꽃매': 이웃들의 지나친 관심과 공감이 부재한 애도가 오히려 폭력으로 변하여 부부에게 또 다른 아픔을 주었음을 나타냄. 19.④ 20. ① 21.③ 22.⑤ 23.② 24.겨울의 시작, 부부가 견뎌내야 하는 고통의 시간. 25.① 26.④ 27.꽃매, 과도한 관심과 진실되지 않은 공감이 부부에게 또다른 고통을 줌. 28.① 29.② 30.⑤ 31.② 32.④ 33.③

**IV 수오재기**

1.③ 2.④ 3.⑤ 4.④ 5.(1) 반어법 (2) 큰형님이 자신의 '나(吾)'를 지킨 것을 겸손하게 표현했다. 6.③ 7.① 8. ② 9.① 10.① 11.④ 12.② 13.④ 14.⑤ 15.④ 16.③ 17.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참된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당신은 옳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지켰으니 본질적인 '나'를 지킨 선비입니다. 18.④ 19.④ 20.③ 21.③ 22.② 23.④ 24.㉠, ㉡, ㉢, ㉣ 25.김보화, 노희은 26.'기'란 어떤 사건이나 경험의 과정을 기록한 한문 문학 양식 중 하나로, 독자에게 교훈이나 깨달음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문학 갈래이다. 오늘날의 수필에 해당한다. 27.③ 28.④ 29.② 30.① 31. ② 32.③ 33.④ 34.① 35.① 36.⑤ 37.태현, 몸 38.② 39.⑤ 40.③

**IV 비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1.④ 2.② 3.② 4.⑤ 5.④ 6.⑤ 7.① 8.② 9.⑤ 10.③ 11.① 12.④ 13.③ 14.④ 15.③ 16.(1) 비오는 날에는 임 씨의 일이 없어 시간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2) 공장주에게 떼인 돈을 받아야 하는 절박한 마음 때문이다. (3) 식구들의 기본적인 생활비이다. 17.④ 18. ③ 19.④ 20.① 21.⑤ 22.② 23.⑤ 24.① 25.③ 26.④ 27.④ 28.② 29.③ 30.⑤ 31.② 32.② 33.④ 34.④ 35.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도시 빈민으로 살아가는 사

회와 그런 사람을 상대로 호의호식하는 부도덕한 부  
유층을 비판한다.

- 끝 -

### III 이생규장전

1.⑤

㉠ 전란으로 인하여 도적이 최 씨를 죽여 이별하게 됨. ㉡ 전쟁 후 이생이 최 씨의 집으로 가서 재회하게 된다. ㉢ 전란 후에 만난 다른 이의 도움 없이 재회한 것임.

3.④

▶㉣: 3차 만남 이후 최 씨의 집에서 사랑이 지속됨.

4.①

▶㉤와 ①은 임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을 나타냄.

② 억압적 현실과 자유 갈망 ③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애환 ④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 ⑤ 아름다운 이상에 대한 그리움과 자기 성찰

**◆주제 저장소◆**

- ① <귀족도>: 임에 대한 그리움과 정한(情恨)
- ② <새>: 억압적 현실에 대한 절망과 자유에 대한 갈망
- ③ <사평역에서>: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애환
- ④ <여승>: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
- ⑤ <별 헤는 밤>: 아름다운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자기 성찰

**▶였다, 1등급 조언◀**

주제는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포인트에 해당한다. 주제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 외부 지문을 다 공부 할 수 없다면 주제만이라도 눈에 익도록 나올 때마다 머릿속에 넣어두자. 그러다 보면, 시의 주제에 대한 큰 틀이 형성되며 시의 전체를 읽지 않더라도 화자의 정서 파악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5.④

▶㉥: 흥건적의 난 때 홀로 살아남은 죄책감을 말함.

**▶넣어둬, 패던 공략◀**

**감각적인 묘사**  
 산문: 주로 수사법과 관련됨  
 운문: 주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과 관련됨

**▶어머, 이건 외워야 해!◀**

**신성성 vs 전기적**  
 ㄱ. 신성성: 인간의 능력, 범위를 초월한 신적인 특성  
 ㄴ. 전기적: 비현실적이고 기이한 특성

<신성성>이 <전기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모든 <전기적> 특성이 <신성성>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6.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마다 애처로워하며 그들의 절의를 사모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를 통해 알 수 있음.

㉠ 시의 삽입을 통해 서정적 분위기를 조성함. 서술 방식은 오히려 이질적임. ㉡ 외부 상황으로 인한 외적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

기를 전개한다. ㉢ 순행적 구성임. ㉣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와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한다.

**▶어머, 이건 외워야 해!◀**

**1. 내적 갈등 vs 외적 갈등 (★★★)**  
 ㄱ. 내적 갈등: 마음속 내면의 고민, 걱정  
 (짜장, 짬뽕 무엇을 먹지)  
 ㄴ. 외적 갈등: 인물vs인물 / 인물vs사회 환경이 서로 대립  
 (부모와 자식 간의 가치관의 차이/자유를 빼앗은 일제에 대한 인물의 투쟁)

**2. <소설 구성>의 분류에 대해 알아보자. (★★)**  
 1) 중심 사건의 수와 형태에 따라  
 ㄱ. 단일 구성: 중심 사건 1개  
 ㄴ. 복합 구성: 중심 사건 2개 이상  
 ㄷ. 액자식 구성: (겉 이야기+속 이야기)  
 ㄹ. 피카레스크식 구성: 독립된 여러 개의 이야기를 통일성을 갖도록 모아서 전개.

2) 사건의 진행 방식에 따라  
 ㄱ. 평면적 구성(순행): 사건의 발생 순서에 따라 진행됨  
 ㄴ. 입체적 구성(역순행): 사건이 역순행적으로 구성되어 진행됨

**▶어머, 이건 외워야 해!◀**

**3. (성격, 심리, 태도 등) 직접적 제시 vs 간접적 제시 (★★★)**  
 ㄱ. 직접 제시: 서술자가 직접 관련된 어휘 사용. (소심, 차분, 완벽하다 등) → 전지적 시점과 연관  
 ㄴ. 간접 제시: 인물의 대화, 행동을 통해 객관적으로 제시됨 → 관찰자 시점과 연관

**▶넣어둬, 패던 공략◀**

설화적 기법: 기이하고 비현실적인 방법이 사용됨

7.①②③

▶① 죽은 최 씨가 다시 나타나는 등의 비현실적 요소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를 줄일 필요가 없음. ② 이생과 최 씨의 만남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기에 밝고 경쾌하게 묘사할 필요가 없음. ③ 시청자가 현실을 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새롭게 인식할 기회를 주어야 함.

**▶넣어둬, 패던 공략◀**

\* (비현실적, 기이한, 신이한)은 같은 맥락의 어휘이다.  
 \* 비현실적 요소가 많은 고전 소설에서 초월적 존재나 그 배경과 관련된 것은 자주 출제되는 요소이다.

**▶어머, 이건 외워야 해!◀**

**1. 산문 문학의 현실성 정도 (★)**  
 ㄱ. 설화: 초(비)현실적인 것이 대부분  
 ㄴ. 고전 소설: 초(비)현실적인 비중이 높음.  
 ㄷ. 현대 소설: 현실적인 것이 대부분  
 ㄹ. 수필: 완전한 현실적인 것

**2. 고전 소설의 특징 (★)**  
 ㄱ. 비현실적인 요소 多,